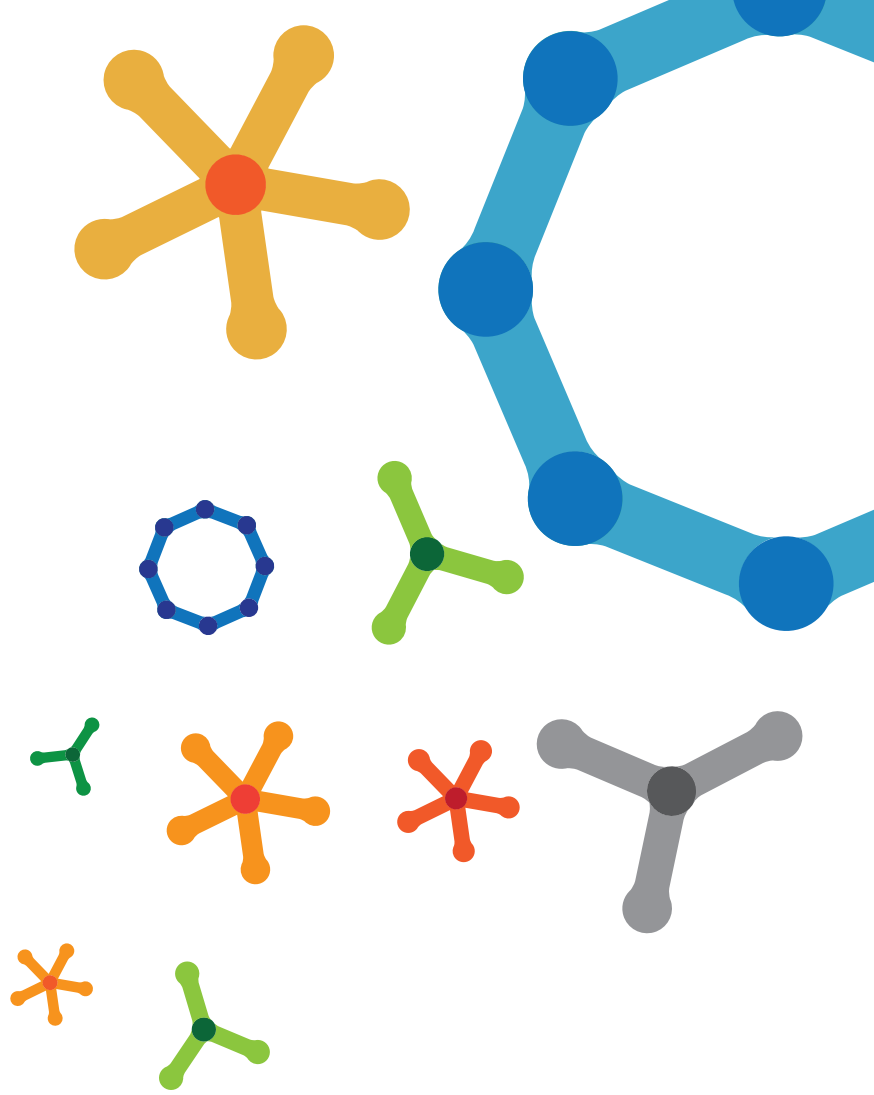


기회불평등
2016 생애 주기별
경험과 인식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4호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

2016.06.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



동그라미재단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연구보고서 목차

신광영 교수 | 서문

이성균 교수 |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고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중심으로

김영미 교수 | 계층화된 젊음: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신광영 교수 | 한국의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양재진 교수 |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서 문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기회 불평등 조사 연구

불평등 체제는 특정한 불평등 원리를 제도화한 사회체제이다. 무엇이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는가의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태어날 때의 신분에 의해서 전 생애가 결정되었던 봉건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상승이동이 가능한 개방사회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인식이 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서 더욱 강하게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가족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사회이동이 가능한 개방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서 위와 같은 견해는 경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최근의 장기 불평등 추세 연구가 보여주듯이, 영국과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80년 전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Piketty 2014; Atkinson 2015). 그리고 20세기 후반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으나, 가족 배경에 따른 자녀 교육과 계급의 차이는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Bourdieu 1980; Blanden et al. 2004).

최근 한국에서 등장한 ‘흙수저-금수저 계급론’ 담론도 기회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한국적 담론이다. 그것은 학력, 직업, 계급과 계층의 세습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족 배경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커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불평등 체제의 고착화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기회 불평등의 심화가 놓여있다. 기회 자체가 가족배경에 의해서 달리 주어지기 때문에, 불평등이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즉, ‘흙수저-금수저’ 담론은 태어날 때의 조건(흙수저-가난한 집 출신, 금수저-부잣집 출신)이 개인의 평생을 좌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불평등은 크게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된다. 기회의 불평등은 지위나 보상(입학, 직업, 결혼, 주택, 연금, 투표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접근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 인종, 계급, 지역, 연령 등에 따라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기회의 불평등은 나타나게 된다. 기회의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결과의 불평등은 기회를 활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지위나 보상의 불평등이다. 결과의 불평등 중에서 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가족 배경, 선천성 장애, IQ, 나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불평등이 있다. 결과의 불평등 가운데 다른 하나는 개인 노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이다.

기회 불평등은 다차원적이다.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기회 불평등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는 경우, 이러한 차이는 영유아의 인지능력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보육의 질 차이로 인한 인지능력 발달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진에 사교육의 비중이 큰 경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받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학습능력의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의 격차는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 능력인 경제력 격차를 반영한다. 학습능력의 평가는 간접적으로 가족배경의 효과를 측정하게 되는 셈이다.

성취 기회는 통시적으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그리고 집합적으로 코호트(연령 세대) 간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생애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고, 그 기회의 활용에 따른 성취의 격차가 나타난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성취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의 불평등으로 가시화된다. 산업, 직업, 교육제도,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 젠더 규범,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 등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코호트 간 기회 불평등도 큰 변화를 보였다.

또한 기회의 불평등은 동일한 생애과정에 놓여있는 코호트 내에서 계급, 성, 지역, 인종, 학력 등에 따라서 나타난다. 전통적인 불평등 연구는 코호트를 고려하지 않고, 계급, 성, 지역, 인종, 학력 등에 따른 격차를 다뤘다.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불리는 상당히 지속적인 패턴으로 존재하는 사회 불평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생애과정의 여러 다른 단계에 있는 사회집단들은 각기 다른 기회 구조와 제약 하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코호트 간 그리고 동일한 코호트 내 불평등은 어떠한가?¹⁾ 코호트 간 그리고 코호트 내 불평등의 내용은 생애과정적 접근(life course approach)을 통해서 잘 포착될 수 있다. 생애과정적 접근은 개인의 생애과정상의 변화들이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구조적인 요소들이 개인들의 생애단계 변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는 접근이다(Elder, Johnson and Crosnoe 2013: 9-10).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생애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기회불평등은 생애과정의 여러 단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유아기의 기회 불평등은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기의 기회 불평등은 주로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연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 불평등은 청년기의 진학이나 졸업 후 취업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과 같은 생활기회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중·장년기는 소득 기회, 계층 이동 기회와 자녀 교육 기회 등의 불평등을 경험한다. 노년기는 연금 획득 기회와 건강한

1) 여기에서 세대는 연령 세대인 코호트(cohort)의 의미를 지닌다. 코호트는 연령과 역사적 시간을 연계시키는 개념으로 추세적 변화도 생애과정에서 서로 다른 연령 세대들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 의해서 노년기 삶의 기회 전체가 결정된다.

생애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기회 불평등은 연쇄적으로 상호 연결성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의 결과 불평등은 과거 기회 불평등의 산물이며, 현재 결과의 불평등은 또한 미래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회 불평등을 순수하게 분리시켜서 논의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초기의 기회 불평등이 이후의 모든 기회 불평등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적인 기회 불평등이 이후의 기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만약, 초기적인 기회 불평등이 이후의 기회 불평등을 완전하게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인도의 카스트 사회와 같이 완전하게 폐쇄적인 사회이다.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과 4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제1차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2016년 조사는 전국의 만 16세 이상, 74세 미만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할당표집을 통해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고등학생 502명과 19세 이상 74세 미만의 성인 3,0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의 구성은 한국 리서치 MS패널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한국리서치 MS패널은 전 국민을 지역, 성, 연령, 직업과 소득분포를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33만 여명의 명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고등학생 500명과 성인 3,000명이 표집되었다. 컴퓨터 지원 웹 인터뷰(Computer Aided Web Interview, CAWI)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CAWI는 E-mail과 Web 조사방법을 이용한 조사이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표본 115명을 대상으로는 면접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대부분의 서베이 자료와는 달리 표본수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표본수가 3,520개로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코호트별로 분석을 하더라도 표본수가 일정 정도 확보되어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시계열 비교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생애과정과 코호트

생애과정에서 각 단계는 그 이후 단계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애과정의 단계별 분석을 위하여 연령 세대를 네 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였다. 네 개의 코호트는 각각 고등학생(17-19), 청년(20-39세), 중장년(40-59세), 노년(60-74세)이다. 그 다음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네 개의 코호트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애과정의 초기 단계인 고등

학생들의 경우, 어린 시절 경험과 고등학생 교육 경험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서 격차를 보인다. 어린 시절의 문화체험 활동, 예체능 분야 사교육, 국내외 여행 경험에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보인다. 고등학생의 학교교육이나 사교육 기회에서도 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강원·호남 등) 간 그리고 상층과 하층 간 큰 격차를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거나 지역의 교육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 차이는 계층이동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고등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의식은 주관적으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혹은 지역적으로 기타지역(강원, 호남 등)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공·사영역의 교육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많았다. 청소년기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그것이 미래의 희망에 대한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애과정에서 청년기는 ‘교육에서 일로의 이행(from school to work)’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동시에 결혼을 통하여 독립적인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년기의 경제활동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는 청년기와 그 이후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년층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모두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출신 청년들은 상층 출신 청년들에 비해서 서울소재대학 진학, 대학에서의 경험과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데이트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결혼과 출산 의사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교육 성취, 노동시장 성취와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도 젠더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여성과 남성은 교육 성취(학벌, 대학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데 반해 여성들은 고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특징 등이 나타나, 가족 형성의 기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이 계층화되고 있다. 중장년, 노년층은 가족 배경과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청년층은 매우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청년층에서는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사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가족형성의 기대감에서도 가족 배경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장년 세대는 자신의 현재 경제활동, 자신의 미래(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중장년 세대의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삶의 안정/위험과 관련하여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격차가 나타났다. 주택은 재산의 의미로서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하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는 주택 소유와는 반대

로 삶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 불평등은 자녀 교육과 계층이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장년층은 과거의 계층이동과 비교해서 미래의 계층이동이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자녀의 계층이동의 경우가 부모-본인 계층이동의 경우보다 3배~11배 정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광역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장년층 삶의 만족도 차이의 원인은 소득수준의 차이로 나타났고, 공정한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노인들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수 세대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세대라는 점에서 문제의 세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까지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머물고 있다. 노년층의 주된 소득원인 공적연금이나 사적 연금 모두 가입 정도가 낮고, 급여액의 수준도 낮아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노년층은 경제성장기 동안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많은 세대이다.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직업이나 가족 배경이 현재 본인의 사회계층과 뚜렷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이동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가족 배경이 사회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1차적 분배인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보상과 제2차적 분배인 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회의 불평등 완화 과제

기회 불평등의 문제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가족 배경, 출신 지역과 성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 요소들이다. 성취를 위한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들 요소들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결정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서 더 뚜렷해지고 있다.

가족 배경(상층과 하층), 출신 지역(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과 성(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대학 진학, 가족 형성, 사회이동, 노후 소득,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 사회이동에 대한 기대 등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고등학생 시기부터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격차가 나타나, 희망격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결혼과 미래 자녀 세대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 기회 불평등의 연쇄 고리가 각기 다른 4개의 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기회의 불평등

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기회 불평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모든 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희망격차’이다.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계층에 따른 미래 전망이 달라졌다. 하층의 경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 불평등의 공고화가 우려된다. 희망격차는 현실의 불평등에서 유래한다. 진학, 취업, 소득, 주택, 가족 형성,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등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인식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차원의 안정과 교육 기회의 보장이 동시에 필요하며, 이는 노동시장, 복지와 조세 등의 영역에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악순환의 고리(경제적 불평등 → 기회의 불평등 → 희망격차 → 불평등 심화와 고착화)가 강화되기 전에, 보다 전면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Atkinson, Anthony B. 2015. *Inequality: What can be don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landen, J., Goodman, A., Gregg, P. and Machin, S. (2004) 'Changes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Britain' in M. Corak (ed.), *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80. *Distin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ng, Kyung-sup. 2010. "The second modern condition? Compressed modernity as internalized reflexive cosmopolitan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44-64.
- Elder, Glen H. Jr, Monica Kirkpatrick Johnson and Robert Crosne. 2013.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fe Course Theory," i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ed. by Jeylan T. Mortimer and Michael J. Shanahann, New York: Springer.
-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고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중심으로

이성균 교수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요약문	1
I. 서론	2
II. 교육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	3
III. 2000년대 교육기회 불평등의 한국적 맥락	5
IV. 분석결과	6
1. 교육 경험	
1) 학교 교육	
2) 사교육	
3) 어린시절 문화체험/교육	
2.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	
V. 결론	19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고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중심으로

이성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요약문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은 사회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계층·지역별로 상이하다. 학교교육이나 사교육 기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강원·호남 등), 상류층 가족배경과 하류층 배경의 학생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어린시절의 문화체험활동, 예체능분야 사교육, 국내외 여행경험도 계층·지역간에 많은 격차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의 교육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 차이는 교육기회불평등, 더 나아가 전반적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계층이동 기대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등학생이 많으며, 취업·승진, 교육, 인맥형성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역의 기회 공평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의식은 주관적 하류층 혹은 기타지역(강원, 호남 등)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어린시절부터 공·사영역의 교육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더욱 부정적이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녀세대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계층이동은 현재의 계층적 지위를 뛰어넘는 상승이동 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나 기회불평등을 반영하는 계층 재생산’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기회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강화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관련 예산확대 등이 필요하며,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별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또한 가정배경이나 사교육경험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배우고 노력한 결과를 기초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기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학력·직종·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좀 더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 서론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기는 성인기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모든 청소년들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회와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제정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하며(청소년기본법 제1장 제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가족차원을 넘어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등 전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OECD, 2013).

특히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청소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적 성장, 인간관계 형성,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좋은’ 대학 혹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진학하려고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에도 사교육을 받으며 살아간다. 대학이 미래의 직업과 인간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공·사영역의 교육기회는 한국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과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민주적 개방사회에서 사회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민주적 개방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출신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교육을 통한 세대내(intragenerational) 혹은 세대간(intergenerational) 계층이동을 분석하고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교육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이러한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Giddens, 2009; 장상수, 2015; 방하남·김기현, 2002). 한국사회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관심 혹은 부모의 자녀 교육열은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용어들이 인터넷에서 일반화되면서, 교육기회의 평등 혹은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노력이나 자질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이 자신의 미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표현되는 청소년들의 의식은 미래의 사회적 행위와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의 생애과정을 볼 때,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 혹은 사회의식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본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홍봉선, 2014: 299), 이 시기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성

인기 생활과 사회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입시에 가장 민감한 연령층’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기회불평등은 진학·취업준비, 사회적 교류관계, 문화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기회불평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회불평등을 설명한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교육경험을 설명하고, 이러한 교육경험이 기회불평등 의식과 사회이동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기회불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찾아본다. 사회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교육불평등의 주요 요인들, 예를 들어서 가족배경이나 지역 등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교육경험, 기회불평등 의식, 사회이동 기대감 등을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 의식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II. 교육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최소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며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무교육제도 도입, 고학력층 노동력 수요 증가, 자녀교육열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 한국의 초등교육 취학률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100%에 이르렀으며, 중고등학교 취학률도 2000년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박환보, 2015).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육현실을 보면, 교육기회가 실제로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특목고·자사고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개별 학교 혹은 교육청별로 상이하다. 특히 내신과 대학입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족배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소년기 사회문화적 체험기회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청소년의 인성개발을 위한 문화·예술·체육분야 체험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 분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과성적과 비교과분야 활동이 대학입시의 주요 평가기준이 되어,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려는 학부모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체험·교육기회는 개인의 가치와 취향 등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토대가 되며 공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 및 문화적 취향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Bourdieu, 1984; 장미혜, 2012),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가족배경, 학교특성,

지역, 사회적 자본(관계) 등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세대에서 생긴 결과의 불평등은 자녀세대에 이르러서는 조건의 불평등으로 바뀌고, 이 조건의 불평등은 자녀가 학업을 이어나가고 직업을 잡으며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약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 (장상수, 2015). 한국사회에서 ‘부모세대에 형성된 결과의 불평등’ 가운데 자녀의 교육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가족배경과 지역 등이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가족배경이 교육기회의 격차를 낳는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모의 학력, 정보, 관심,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소위 입시명문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교육접근성도 이러한 가족배경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예술취향이나 인지능력, 독서습관 등과 같은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성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Giddens, 1997; Sorensen and Morgan, 2000; Coleman et al., 1966; 변수용·김경근, 2008). 한국의 경우에도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Park, 2013; Byun and Kim, 2010; 김경근, 2005, 방하남·김기현, 2002). 부모 세대의 학력은 과거보다 더 높고 자녀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투자는 더욱 높아지고 사교육의 학업성취도 효과도 더욱 증가한다(신중호·황혜영·서은진, 2010).

또한 지역별 교육 환경·인프라 등도 교육기회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거주지나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 교육 기회, 여건, 질 등이 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육기회를 제공받는다. 미국의 경우, 빈민층 거주지역과 중상층 거주지역은 학교시설과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에서 현저히 구분되며(Coleman et al., 1966), 아동이나 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간 혹은 도시-농촌간에는 학교시설,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사교육 기회, 상급학교 진학률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강영혜·김양분·류한구·김재철·강태중, 2004: 5~6).

일반적으로 교육여건과 기회는 전반적인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공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낳고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기회도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남권,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알려진 호남권과 강원권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도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라는 '2014년 지역소득(잠정)' 조사결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KOSIS). 또한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광역행정단위에서도 주민들의 소득과 직업분포 등에 따라서 교육관련 수요, 인프라, 시설 등이 달라져 교육기회 격차가 발생한다. 결국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가정배경뿐만 아니라 지역별 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국사회의 지역발전 격차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교육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2000년대 교육기회 불평등의 한국적 맥락

2016년 현재 고등학생 연령층과 이들의 부모세대는 한국사회 변화과정에서 독특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들은 ‘IMF위기’로 상징되는 경제위기,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변화 등을 경험하였고, 특히 부모세대의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세계화의 경험은 자녀교육 방식이나 내용, 사교육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 이후 한국사회는 경기불황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라서 노동시장과 가계경제 상황도 과거 고도성장기와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안정적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는 증가하였으며, 산업·직업·기업규모·고용형태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자녀보육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도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고등학교 연령층의 부모세대는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자영업 전환 및 몰락 등을 직접 경험하였고, 고등학생 본인들도 청년실업문제 등에 관한 소식을 접하며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체험하였다.

또한 현재 고등학생들이 성장한 2000년대는 정보화와 세계화가 한국사회를 지배한 시기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면서, 한국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고 컴퓨터, 이동통신, 게임,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방식도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품·노동력·자본·문화 등이 전체계적으로 통합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eoliberal globalism) 흐름이 한국사회를 지배하였다(이성균·신광영·조돈문, 2007; 안병영·임혁백, 1999). 이른바 ‘인터넷 강의’가 공·사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청소년들의 해외탐방·교류기회가 늘어나고 영어능력이 중시된 것은 2000년대의 정보화와 세계화 흐름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은 교육제도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에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교육당국은 교육제도 운영의 유연화, 교육 선택권, 외국어교육 확대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율형사립학교 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추진된 경험도 있다(김영화, 2015; 268). 또한 대학입시제도도 수시·정시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 및 종합) 전형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이러한 입시제도 변화는 초·중등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기회를 더욱 다양화시킨다.

소위 입시명문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부터 각종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과 부모가 늘어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결국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교육경쟁, 실용적 목표, 세계화 등을 중시하던 시기에 태어나고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대학입시를 위하여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등 많은 분야에서 교육적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 집단이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서 대학입학자원이 줄어들어 대학진학 기회 자체는 좀 더 확대되지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학과 전공에 대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였다. 청소년들의 교육경험이 나 불평등의식은 이처럼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적 능력이 가계수준별로 격차를 나타내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¹⁾

IV. 분석결과

이 연구는 2016년 현재 고등학생 연령층에 대한 설문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이들의 교육관련 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파악하고, 가족배경 및 지역별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교육기회 불평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 사교육 경험, 어린시절(응답자의 8~13세 시절)의 문화예술체험·교육기회를 계층·지역별로 비교하고,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과 계층이동에 관한 의식을 자세히 살펴본다. 분석에 활용한 응답자는 고등학생 연령층 500명(가중치를 부여한 응답자규모)이다. 성별로 남성 52.1%, 여성 47.9%이며, 학교유형별로 일반계 고등학생 77.1%, 비일반고(특목고, 예체능계열학교 등) 22.9%, 지역별로 서울 17.3%, 인천·경기도 31.0%, 영남권 15.6%, 기타 지역(강원, 충청, 호남 등) 26.1%이다.

1. 교육 경험

1) 학교 교육

중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한국사회에서 교육기회를 파악하는 일차적 작업은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이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교육기회를 나타내지만, 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 및 시설 등이 교육기회의 현실을 나타낸다.

1)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들이 과외·학원·방문학습지·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소득 100만원 가구의 사교육 비용은 10만2000원이었으나, 7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82만8000원이었다. 또한 ‘2014 한국사회조사’에서 13~29세 연령층의 교육기회 충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교육기회가 충족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비마련이 어려워서’(45.3%)이다.

<표 1>에 의하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교육기회, 다양한 예체능활동기회,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고등학생들의 거주지역이나 가족배경에 따라서 상이하다. 6개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지역은 서울이며, 가장 부정적인 지역은 기타 지역(충청·호남·강원 등)이다. 또한 가족배경이 상류층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하류층 소속 학생들에 비하여 긍정적이며, 특히 교사-학생의 관계, 진로지도, 고민상담 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하류층 학생들의 평가는 상류층 학생만큼 긍정적이지 않으며,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한 보충교육기회와 다양한 예체능활동기회 등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주관적 계층에 따른 학교교육 평가의 차이는 6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²⁾ 상류층 소속 고등학생을 한편으로 중·하류층 학생을 다른 한편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표 1>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구분	기초학력 부족학생 보충교육 실시	학교 교육 시설이 좋음	다양한 예체능 활동 기회 제공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음	학생 고민 상담 실시	진로 선택에 도움	6개 문항 합계 점수
전체	3.15	3.29	3.19	3.06	3.63	3.61	20.54
성							
- 남성	3.23	3.34	3.18	3.66	3.66	3.61	20.67
- 여성	3.06	3.23	3.21	3.67	3.61	3.62	20.41
지역							
- 서울	3.35	3.57	3.42	3.80	3.67	3.71	21.52
- 인천, 경기	3.14	3.27	3.14	3.64	3.64	3.58	20.59
- 영남권	3.19	3.26	3.22	3.73	3.68	3.63	20.41
- 기타 지역	2.98	3.14	3.08	3.54	3.55	3.58	19.99
주관적 계층							
- 상류층	3.55	3.62	3.43	3.98	3.95	3.95	22.48
- 중간층	3.11	3.28	3.28	3.65	3.66	3.61	20.60
- 하류층	3.06	3.19	3.01	3.57	3.49	3.51	19.85

주) 표의 수치는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않다.....⑤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이다.

2)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등이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학교교육과 관련한 6개 문항(<표 1>)의 F값은 4.70, 3.68, 3.86, 4.28, 5.23, 4.44이며, 유의확률은 모두 0.01이하로, 평가점수(5점척도)의 계층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본문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통계값 및 유의확률 등을 각주에서 제시한다.

2) 사교육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이 주로 대학입시용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들의 교육기회 현실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사교육 기회와 경험이다. 더 많은 혹은 질 높은 사교육을 통하여 주요 교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논술이나 자기소개서, 입시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사교육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등학생의 63.3%가 현재 학원수강·개인(그룹)과외·인터넷강의 등 각종 사교육을 받을 정도로 사교육은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사교육 경험은 성별 차이 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사교육 경험자 혹은 사교육 과목(군) 수에서 성별 차이가 없으며,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남학생 비중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높을 뿐이다.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자녀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투자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 기회는 학생의 가족배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표 2>). 사교육은 고등학생의 주관적 계층에 따라서 상이한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은 하류층(58.4%)보다는 상류층(72.4%)에서, 월평균 100만원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의 비중도 하류층(7.3%)보다는 상류층(18.6%)에서 훨씬 더 높다. 사교육과 가족배경의 연관성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응답 고등학생 가운데 36.7%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며,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다(14.5%)’가 아니라 ‘가정형편상 사교육비용이 부담이 된다(33.3%)’는 점이다. 특히 하류층 가운데 50.6%, 중간층 가운데 23.1%가 ‘사교육비의 부담’을 이유로 사교육기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고등학생의 사교육 현황

구분	사교육 경험자 비중(%)	사교육 과목(군) 수*	월평균 사교육비용 분포(%)				
			40만원 이하	41~60만원	61~80만원	81~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 체	63.3	1.31	50.0	19.18	12.26	8.49	10.06
성							
- 남성	64.0	1.31	42.51	20.36	16.77	10.18	10.18
- 여성	62.3	1.31	53.39	18.79	6.71	7.38	8.72
지역							
- 서울	77.9	1.87	43.93	19.69	10.60	12.12	23.63
- 인천, 경기	61.9	1.30	46.31	15.79	15.79	11.57	19.52
- 영남권	68.7	1.30	51.13	26.13	5.68	5.68	11.36
- 기타 지역	50.0	.97	60.0	13.84	16.92	6.15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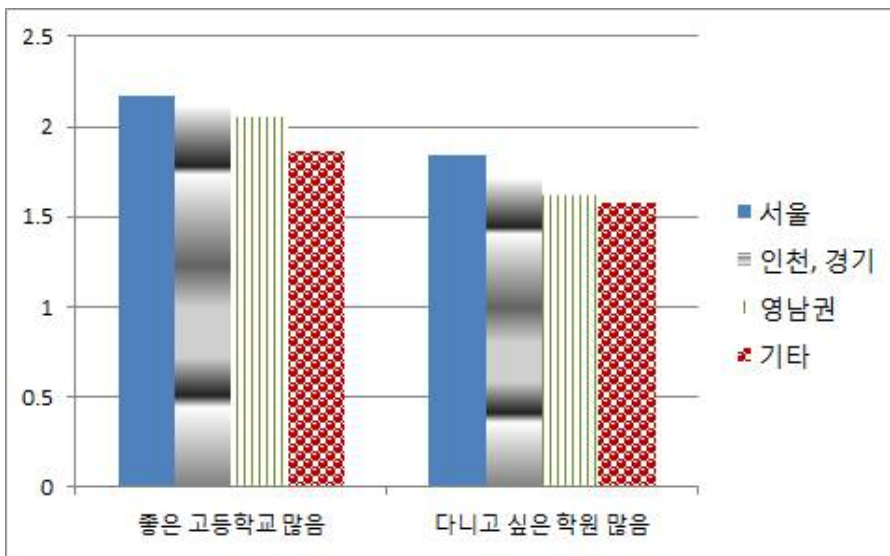
주관적 계층							
- 상류층	72.4	1.53	30.23	11.62	20.93	18.60	18.60
- 중간층	64.7	1.34	48.19	22.89	8.43	10.84	9.64
- 하류층	58.4	1.20	60	16.36	14.54	0.90	7.27

주) '사교육 과목(군) 수'는 국어·영어·논술과목군, 수학과목군, 영어과목군, 사회·과학과목군, 한문·제2외국어과목군, 예체능과목군, 컴퓨터·자격증취득과목군의 수치를 의미하며, 월평균 사교육 비용 분포(%)는 사교육 받은 학생 가운데 비용별 분포를 의미함.

또한 사교육경험은 고등학생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달라진다.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의 비중이나 사교육비 지출액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더 높고, 비수도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더 높다. 호남·강원권 등 기타지역에서 사교육경험 학생의 비중은 50%로 서울의 2/3 수준이며, 이들이 월평균 100만원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3%로 서울보다 훨씬 낮다(<표 2>).

결국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기회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별 교육여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평가도 동일한 순서의 지역격차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자료에서 '우리지역에는 좋은 고등학교가 많다' 혹은 '다니고 싶은 사교육기관이 많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며, 수도권>영남권>기타지역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 따라서 이러한 교육여건의 차이가 공·사영역 교육기회의 지역격차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지역별 교육여건



주) 표의 수치는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의 평균값.

3) 어린시절 문화체험·교육

청소년의 교육기회는 어린시절의 문화체험·교육 기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열이 높은 현재의 부모세대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전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초등학교입학 후에도 자녀의 재능개발을 위하여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을 실시한다. 설문조사 응답학생 가운데 97.5%가 어린시절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 경험이 있으며, 80%는 8~13세 무렵에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분야의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경험한 예체능분야 사교육기회 조차도 학생의 계층이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표 3> 참고). 주관적 계층별로는 상류층가정의 학생 가운데 89.8%가 어린시절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하류층 가운데 이러한 경우는 74.7%에 불과하다. 또한 예체능분야 사교육 경험자 비중은 수도권·영남권에서 모두 80%이상이지만, 기타지역에서는 62.3%에 불과하다.

고등학생들의 과거 문화체험 경험도 지역 및 계층별로 차이를 나타낸다.³⁾ 서울지역 학생은 다른지역 학생보다 오페라·뮤지컬 등 공연 관람, 미술관·박물관 관람의 경험이 더 많으며, 비교적 대중적인 문화활동인 연극·영화 관람 기회도 수도권·영남권과 기타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계층별로도 상류층 학생들은 4개 영역의 문화활동 경험이 하류층 학생에 비하여 더 많았으며,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 경험자 비중도 하류층 학생보다 1.8배 정도 높다.

<표 3> 어린시절(8~13세) 문화체험·교육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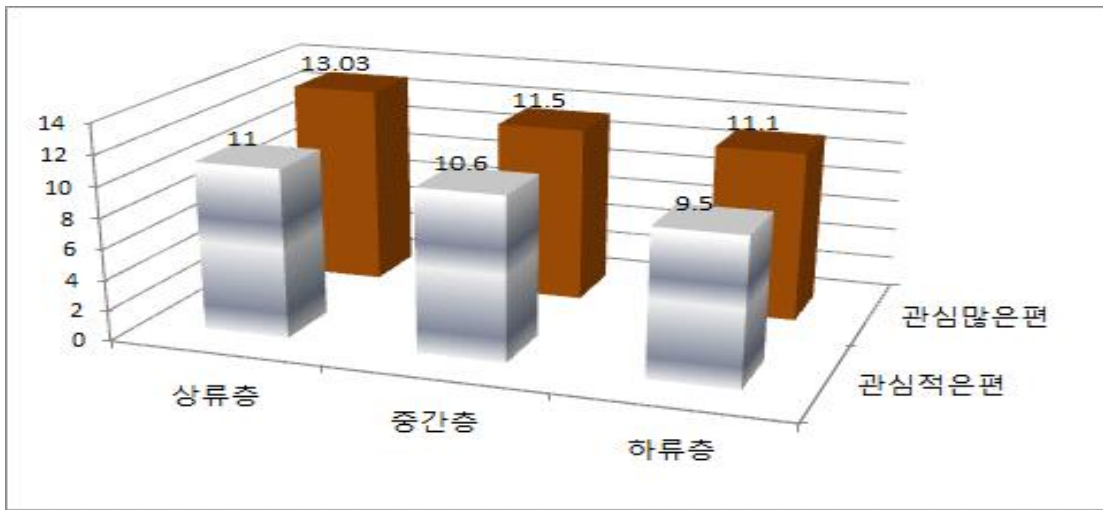
구분	문화체험활동 빈도(점)				문화여가활동 경험자 비중(%)	
	오페라, 뮤지컬 공연관람	미술관, 박물관 관람	연극, 영화 관람	가족 여행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해외여행·방문경험
전체	2.02	2.51	3.31	2.84	79.8	39.9
성						
- 남성	1.99	2.42	3.23	2.85	75.9	42.1
- 여성	2.05	2.60	3.39	2.84	83.8	37.5
지역						
- 서울	2.22	2.78	3.43	2.84	80.5	51.7
- 인천, 경기	2.02	2.59	3.34	2.78	88.4	42.6
- 영남권	2.12	2.47	3.41	2.93	86.7	36.7
- 기타 지역	1.79	2.26	3.08	2.80	62.3	32.1

3) 문화체험 및 교육활동의 지역·계층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계층간 평균값을 비교하면, 4개 항목의 F값은 8.25, 110.3, 10.69, 10.37이며, 유의확률은 모두 0.01이하이다.

주관적 계층						
- 상류층	2.46	2.81	3.39	3.20	89.8	61.0
- 중간층	2.04	2.51	3.45	2.93	81.1	39.4
- 하류층	1.86	2.40	3.08	2.59	74.7	33.7

주) 문화체험활동 빈도는 각 영역의 5점척도(①한번도 없음...⑤월 2회이상) 평균값이다.

<그림 2> 부모의 자녀관심도와 주관적 계층에 따른 문화체험활동 빈도



주) 수치는 4개 문화활동빈도의 5점척도합계이며, '관심많은/적은 편'의 구분은 주4) 참고.

원래 아동·청소년기 문화체험활동은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 조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교우관계 혹은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 예체능분야 사교육 경험 비중이 더 높고, 오페라 등의 문화체험, 국내외 여행 등의 경험이 더 많았다.⁴⁾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정도가 동일한 집단에서도 4개 항목의 문화체험활동 빈도는 상류층>중간층>하류층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어린시절의 문화체험경험은 부모의 관심뿐만 아니라 가정의 계층적 배경과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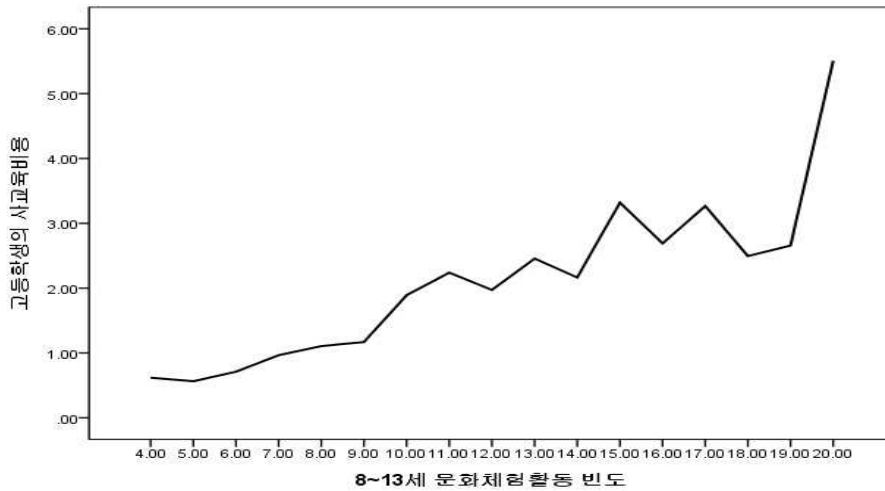
한편 세계화 시대에는 청소년들의 해외방문경험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였으며, 응답자 40% 정도는 해외를 방문하거나 여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도 서울과 비수도권지역, 상류층과 중간·하류층 고등학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표 3>). 또한 해외경험이 없는 경우에 주요 원인이 '가정형평상 여행비용이 부담되는 점'(41.1%)이며, '가정형편상 여행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이 하류층 고등학생에서 가장 많다.

이러한 어린시절 문화체험경험의 차이는 고등학생 시절의 사교육 경험의 차이로 연결된다. 부모의 관심도나 지원정도가 높은 고등학생들은 이미 초등·중학교시절에 많은

4) '관심이 많은 편'과 '관심이 적은 편'은 8~13세 시절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4개 문항("부모님께서 자녀의 학교준비물, 숙제 등을 꼼꼼히 챙겨주셨다,"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자녀가 원하는 책을 자주 사주셨다" 등)을 기초로 구분하였다. 예체능 사교육경험자 비중은 '자녀의 교우관계 혹은 교육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 88.6%이지만, '관심이 적은 경우'에는 67.2%에 불과하다.

교육기회를 제공받았으며, 부모의 지원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학생의 고등학교시절 사교육기회도 다른 학생에 비하여 더 많다(<그림 3>). 결국 고등학생들의 교육기회 격차는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교육경험이 누적된 것이며, 이러한 생애과정의 교육격차는 사회적 기회불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 어린시절 문화체험활동과 현재 사교육비의 연관성



2.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

한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성공을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한국 고위층의 성취’이나 ‘본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당사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표 4>).

<표 4> 한국의 사회적 성공과 기회 공평성에 대한 의식

(단위: 점)

구분	사회적 성공			사회적 기회 불공평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고위층의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결과이다.	개인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회가 공평하다
합계	3.68	3.58	3.22	3.70
성				
- 남성	3.62	3.54	3.15	3.67
- 여성	3.75	3.63	3.30	3.73
지역				
- 서울	3.63	3.61	3.27	3.65
- 인천, 경기	3.71	3.61	3.22	3.64
- 영남권	3.55	3.50	3.09	3.68
- 기타 지역	3.81	3.60	3.32	3.81
주관적 계층				
- 상류층	3.24	3.01	2.70	3.27
- 중간층	3.55	3.54	3.14	3.59
- 하류층	3.99	3.82	3.49	3.98

주) 표의 수치는 각 문항에 대한 5점척도(①매우 긍정....⑤매우 부정)의 평균값이다.

또한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상류층 소속감을 갖는 고등학생에 비하여 하류층 소속감을 갖는 학생들이 더욱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는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류층<중산층<하류층의 순서로 나타나며, 세 계층집단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명확하다.⁵⁾ 지역별로 구분해도, 수도권과 영남권보다는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이다.

5) 표의 4가지 항목에 대한 계층간 평균점수의 통계량(F값)은 16.96, 16.21, 16.82, 23.76이며, 모든 항목의 유의확률 <0.01이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위한 기회도 공평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공평하다’는 응답은 고등학생 가운데 6.1%에 불과하며,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은 61.7%에 이른다. 또한 기회공평성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 혹은 계층소속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위 문항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적은 집단은 상류층 가정의 고등학생, 가장 많은 집단은 하류층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들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표 5>에서도 확인된다. 기회불평등과 관련한 6개 항목에 대한 7점척도 응답결과(평균점수)를 보면,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회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 생각하며,⁶⁾ 특히 ‘취업을 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평균점수 5.06), ‘사회적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평균점수 4.78)과 ‘교육의 기회 불평등’(평균점수 4.45)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노동시장과 교육 영역이 학교-노동시장 연계 영역(from school to work)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인맥도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회불평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지역과 가족배경 등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충청·강원·호남권 고등학생은 대부분의 기회불평등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하다고 의식하며,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또한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6개 항목 전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계층간 의식격차는 주로 상류·중산층과 하류층 사이에서 명확히 존재한다. 특히 교육, 사회적 관계,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하류층 고등학생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주관적 하류층 고등학생들이 노동시장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맥형성 기회불평등도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은 사회적 관계의 계층별 격차를 반영한다. 혈연이나 학연 등 사회적 연줄망(network)이 개인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의 폭이나 크기도 사회계층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조사자료의 상류층 고등학생 가운데 10.2%가 ‘가족, 친지, 선후배 등을 통하여’ 아는 고위직 공무원이 있으나, 하류층 학생 가운데 이러한 경우는 1.6%이다. 또한 대기업임원, 법조계, 교수, 의사 등을 아는 경우도 사회계층별로 명확히 차이난다. 이러한 현실이 하류층 소속 고등학생들의 ‘인맥형성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6)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6개 기회불평등 영역의 연관성을 분석하면, 문항①의 성분행렬수치는 .77, 문항② .80, 문항③ .74, 문항④ .79, 문항⑤ .74, 문항⑥ .79로서 고등학생들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일관됨을 알 수 있다.

<표 5> 기회불평등 심각성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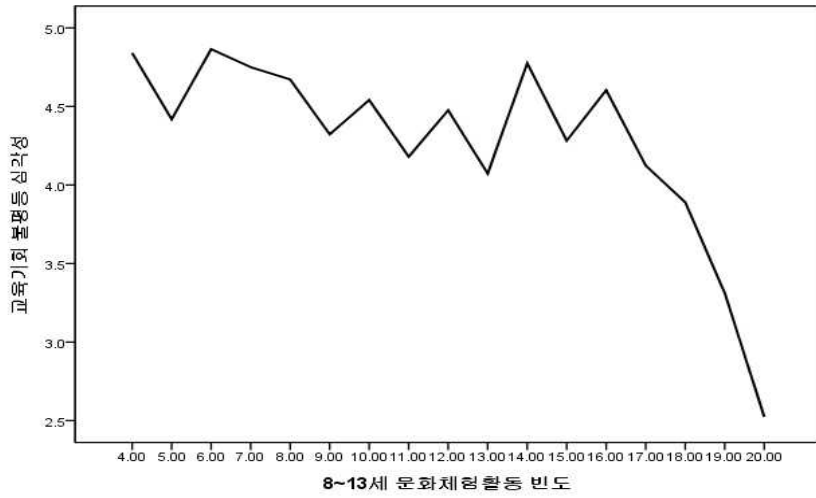
구분	1)교육 기회 불평등	2)사 회 인맥 형 성 기회 불평등	3)취업· 승진 기 회 불평 등	4)문화활 동 기회 불평등	5)건강관 리 기회 불평등	6)정보획 득 기회 불평등	◎ 6개 항목 합 계
전체	4.45	4.78	5.06	4.30	4.00	4.25	26.83
성							
- 남성	4.35	4.68	4.97	4.24	4.00	4.22	26.46
- 여성	4.55	4.89	5.15	4.36	4.00	4.27	27.23
지역							
- 서울	4.32	4.75	5.01	4.21	3.93	4.35	26.57
- 인천, 경기	4.40	4.68	5.10	4.32	3.98	4.08	26.61
- 영남권	4.45	4.75	5.01	4.25	3.96	4.29	26.67
- 기타 지역	4.58	4.95	5.08	4.36	4.11	4.33	27.41
주관적 계층							
- 상류층	4.15	4.40	4.64	4.09	3.88	4.0	25.16
- 중간층	4.34	4.63	4.90	4.19	3.92	4.16	26.15
- 하류층	4.69	5.11	5.40	4.50	4.15	4.44	28.29

주) 표의 수치는 각 문항의 7점척도(①전혀 심각하지않다....⑦매우 심각하다) 평균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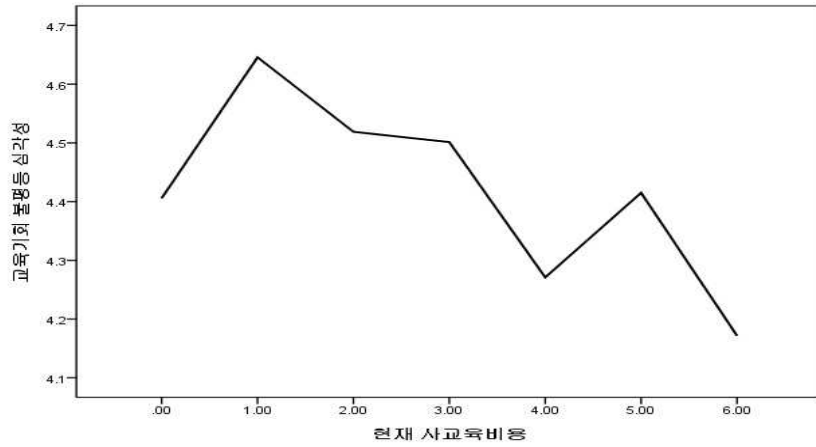
고등학생들의 교육기회불평등에 대한 의식도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교육경험과 밀접히 관련된다. 8~13세 시절에 음악·미술·여행 등 문화체험활동이 적었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이 많았던 학생들에 비하여, 현재 사교육비를 적게 사용하는 고등학생들은 많이 사용하는 학생에 비하여 교육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그림 4>, <그림 5>). 반면 어린시절 문화체험활동이 상당히 빈번했던 학생들 혹은 현재 사교육비를 월평균 100만원이상 사용하는 학생들은 교육기회불평등에 대하여 덜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 평가도 전반적인 기회불평등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상담 혹은 진로지도 등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충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할수록 학생들의 사회적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어든다(<그림 6>).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경험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으로서, 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이 교육기회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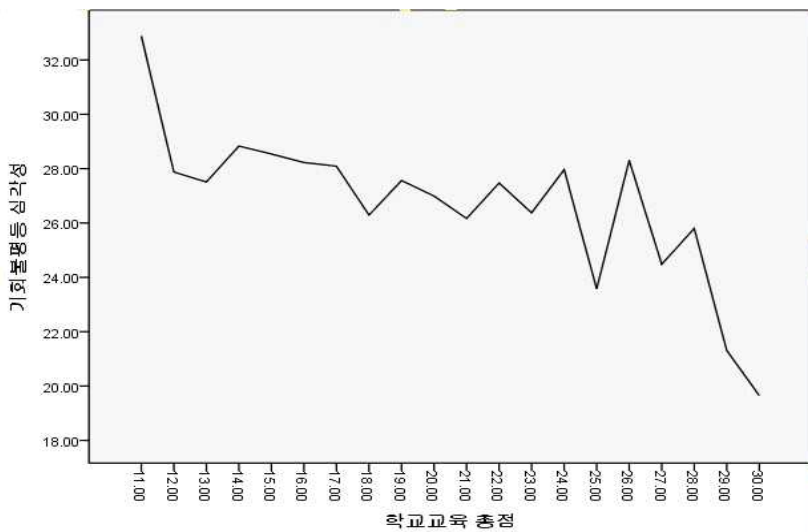
<그림 4> 어린시절 문화체험·교육경험과 교육기회불평등 의식



<그림 5> 현재 사교육비용과 교육기회불평등 의식



<그림 6> 현재 학교교육 경험과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



3. 기회불평등과 계층이동 의식

사회적 기회불평등 의식이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반영한다면, 계층이동 의식은 현재부터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동에 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할 경우, 응답자가 생각하는 15세 무렵(중학교 3학년 시절) 계층지위 점수는 4.95이며, 이들의 미래세대(자신의 자녀가 응답자의 연령이 될 경우)는 5.87의 계층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관적 하류층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기대하는 계층상승이동 폭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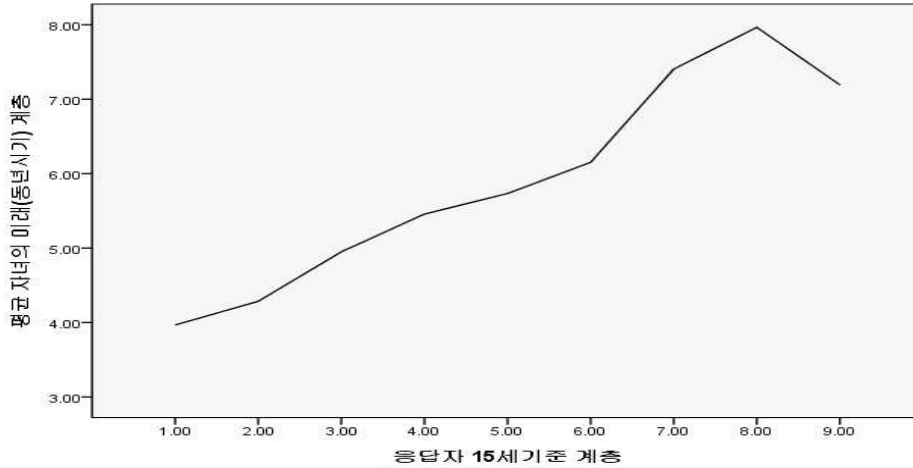
<표 6> 계층이동 가능성: 주관적 계층지위를 기준으로

(단위 : 점)

구분	A. 응답자의 15세 기준 계층지위	B. 자녀의 미래(응답자와 동일연령) 계층지위	C. 계층상승이동 기대 정도 (B-A)
전체	4.95	5.87	0.92
성			
- 남성	5.04	5.83	0.79
- 여성	4.86	5.92	1.06
지역			
- 서울	5.35	6.04	0.69
- 인천, 경기	5.02	6.06	1.04
- 영남권	4.85	5.83	0.98
- 기타 지역	4.71	5.59	0.88
현재 계층			
- 상류층	6.90	8.09	1.19
- 중간층	5.36	6.01	0.65
- 하류층	3.78	4.9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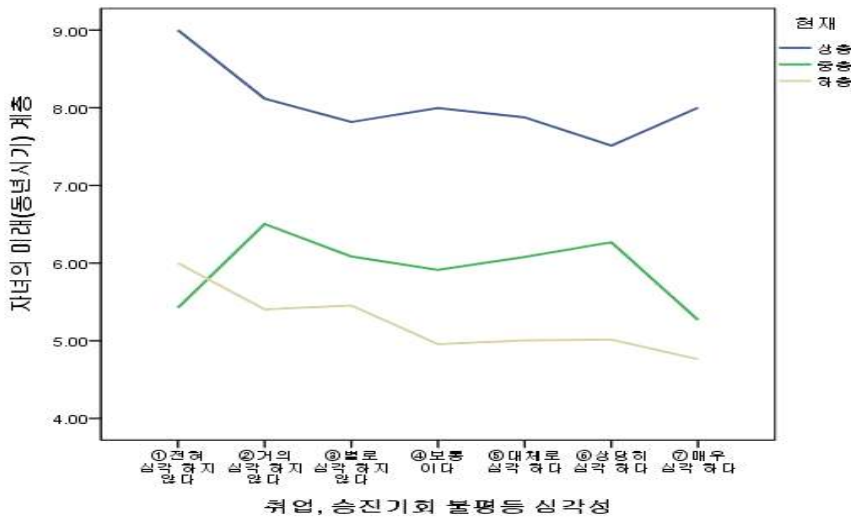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현재의 계층장벽을 뛰어넘는 상승이동을 기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하류층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고등학생들은 미래의 자녀세대들도 여전히 낮은 계층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며, 상류층 고등학생들은 자녀도 중산층 혹은 하류층 출신 자녀보다 더 높은 계층에 소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그림 7> 참고). 일례로 현재 상류층 소속 고등학생이 기대하는 자녀의 미래 계층지위는 평균 7점이상의 범위에 있으나, 하류층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점이하의 범위에 있다. 또한 가구소득 200만원이하의 고등학생 응답자는 자녀들의 미래 계층지위가 평균 5.63점수준일 것으로,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의 고등학생은 자녀들이 미래에 6.24점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기대하는 세대간 이동은 계층의 장벽을 넘는 상승이동 보다는 소득·직업을 기초로 한 계층적 재생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림 7> 세대간 계층이동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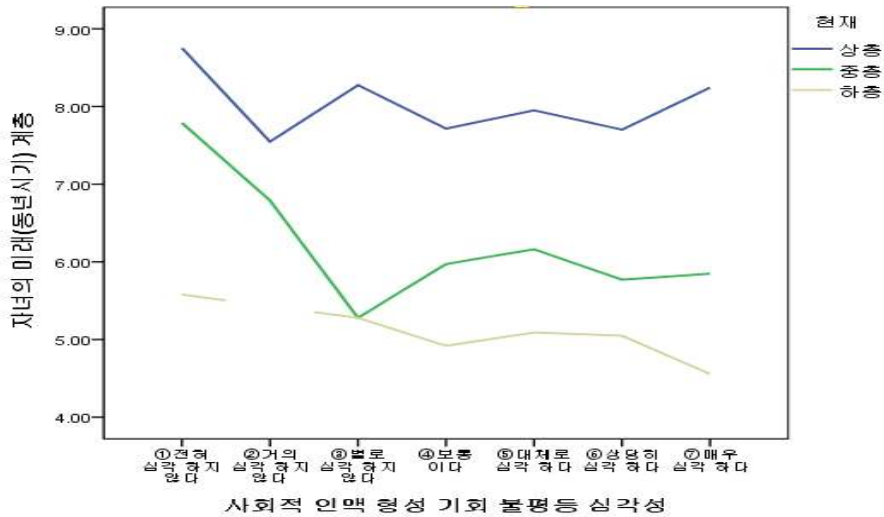


이러한 계층이동에 대한 평가는 기회불평등 의식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승진관련 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고등학생이 기대하는 자녀세대 계층지위는 ‘심각하지 않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비하여 더 낮으며, 이들이 인맥형성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미래세대의 계층지위도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8>, <그림 9> 참고). 또한 이러한 경향이 상·중간층 보다는 하류층에 소속된 고등학생에서 좀 더 명확히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계층적 지위의식이 낮은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기회불평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취업·승진기회 불평등의식과 자녀의 계층 기대감



<그림 9> 인맥형성기회 불평등의식과 자녀의 계층 기대감



V. 결론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과 기회는 사회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계층·지역별로 상이하다. 학교교육이나 사교육 기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강원·호남 등), 상류층 가족배경과 하류층 배경의 학생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어린시절의 문화체험활동, 예체능분야 사교육, 국내외 여행경험도 계층·지역간에 많은 격차를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의 교육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교육경험의 차이는 교육기회불평등, 더 나아가 전반적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계층이동 기대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성공이 노력만으로 된다’ 혹은 ‘성공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등학생이 많으며, 취업·승진, 교육, 인맥형성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역의 기회 공평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의식은 주관적 하류층 혹은 기타지역(강원, 호남 등) 고등학생일수록, 그리고 어린시절부터 공·사영역의 교육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더욱 부정적이다. 또한 기회불평등 의식은 사회적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녀세대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계층이동은 현재의 계층적 지위를 뛰어넘는 상승이동 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나 기회불평등을 반영하는 계층 재생산’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불평등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와 같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불평등

하게 제공된다면, 교육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미래의 꿈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청년세대의 사회적 좌절과 저항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정책들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학교교육’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강화와 균형발전이다. 학생들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기회도 가능한 학교별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하며,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별 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교육·복지정책도 공교육 강화와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사교육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적 관심을 공교육으로 되돌리고, ‘학교가 배움과 교육의 핵심적인 장(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공교육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은 대학입시제도이다.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상황에서, 입시제도 자체가 특정한 사교육활동 경험자와 가정배경 출신자, 그리고 특정유형의 학교졸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많은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교에서 배우고 노력한 결과를 기초로 공평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며, 가정배경이나 사교육경험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도록 입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회불균형 현실을 고려하여, 낙후지역 및 저소득가정 학생 가운데 잠재적으로 능력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유지·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고등학교의 입시제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기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교육분야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2000년대 들어서 더욱 커지는 것은 학력·직종·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 사회불평등 확대와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성인세대들의 빈곤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들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혜·김양분·류한구·김재철·강태중, 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영화. 2015. “한국의 교육과 경제성장.” 오성철 외 저. 『대한민국교육 70년』 209-286.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박환보. 2015. “해방이후 학교교육 팽창의 규모와 특징.” 오성철 외 저. 『대한민국교육 70년』 145-208.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7-26.
- 변수용·김경근. 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2): 53-82.
- 신중호·황혜영·서은진. 2010.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1(4): 249-264.
- 안병영·임혁백, 1999.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
- 이성균·신광영·조돈문. 2007.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한국, 미국, 브라질의 사례연구』. 서울: 집문당.
- 장미혜, 201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상수, 2015,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오성철 (외) 저. 『대한민국교육 70년』 287-347.
- 장상수. 2000.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3): 671-708.
- 통계청. 2015. “2015 한국의 사회지표.” 2016년 3월 23일자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2018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년 4월 28일 보도자료
- 홍봉선. 2014. “청소년문제와 사회복지.” 최선화 외 (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양서원.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Byun, Sooyong and Kyungkeun Kim. 2010.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 Korea: The Widening Socioeconomic Gap in Student Achievement." *Review in Sociology of Education* 85(3): 219-239.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_____. E. Q. Campbell, C. J. Hobson, J. McPartland, A. Mood, F. D. Weinfeld, and R. L. York.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Giddens, Anthony. 2009. *Sociology* (6th edition). Polity Press.
- OECD. 2013.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ality: Giving Every Student the Chance to Succes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rk, Hyunjoon, 2013, *Re-evaluating Education in Japan and Korea: Demystifying Stereotypes*. Oxford: Routledge.
- Sorensen, Aage B. and Stephen L. Morgan. 2000. "School Effect: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M. T. Hallian (eds.) *Handbook of Sociology of Education*, 137-160. New York: Kluwer Academic.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김영미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요약문	1
1. 문제제기	3
2.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관점	
2) 청년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원천: 가족, 젠더, 분절노동시장	
3. 연구자료와 방법, 청년층의 내부구성	7
4.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 불평등	11
5. 청년층의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	16
6.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 인식의 세대 내 차이	19
7. 토론 및 결론	2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요약문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청년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따라서 일/경력 요구와 가족/사적 요구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시기이다. 청년기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의 평등은 청년기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의 삶의 질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복지제도의 특징, 산업사회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클 예상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불평등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년층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모두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서울소재대학 진학, 대학에서의 경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의 청년들에 비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서도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데이트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결혼과 출산 의사 등에서도 뚜렷하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젠더 격차이다. 청년 여성과 남성은 교육 성취(학벌, 대학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족 형성의 기회에 있어 젠더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데 반해 여성들은 고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특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청년층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이 계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년, 노년층은 가족 배경과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청년층은 매우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청년층에서는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사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오늘날 청년들을 삼포세대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청년층 내 삼포현상이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배경의 효과는 한국사회가 개방적

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적 사회(clo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기회와 가족 형성 기회 모두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족 배경과 젠더 등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누적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도록 청년기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1. 문제제기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던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 남성과 여성들은 생애과정의 새로운 단계, 청년기로 접어들게 된다.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를 아우르는 청년기는 흔히 청춘, 인생의 황금기로 불리지만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따라서 일/경력의 요구와 가족/사적 요구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시기(Lothaller, 2010:109)”로 불안감과 중압감이 매우 큰 시기이다. 독립적 성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이 시기의 남성과 여성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기에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에 따라 청년기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시장의 기회, 즉 안정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지 여부는 장기적인 생애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태기, 남재량, 2000; 최을, 이왕원, 2016). 가족 형성의 기회 역시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으로 삶의 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싱글가구와 맞벌이가구 간의 가족 소득의 격차가 증가하게 되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및 여가생활이 조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 가족관계를 갖게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사회문화적 삶의 질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Blossfeld et al., 2006). 이 연구는 한국 청년층이 일과 가족형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얼마나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층의 기회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많은 경우 청년층과 기성 세대 간의 세대 간 기회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청년층을 명명하는 많은 담론들,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N포세대, 달관세대 등 역시 청년층의 내적 이질성 보다는 기성 세대와의 집단 간 격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청년층의 노동시장 및 가족 형성 기회는 국가의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상당한 국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의 정도의 차이이다. 개인의 생애과정에 대한 거시적 조건의 규정력을 강조하는 쇼블(Chauvel, 2010)은 대륙유럽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형에서는 “내부자 세대(insider generation)”와 “외부자 세대(outsider generation)” 간의 세대 간 불평등이 큰 반면 미국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큰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 안전망이 성기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미국형에 가까운 우리 사회에서 역시 세대 내 불평등이 큰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세대 내 기회불평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산업자본주의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이다. 60년대에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에 한국사회는 이례적으로 높은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보여왔다. 사회이동의 급격성(사회이동의 속도가 빠름)과 과격성(사회이동의 폭이 넓음)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는 높은 사회적 개방성을 보이는 한편 사회계층이 미형성되

는 혹은 지연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그러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완료된 1980년대부터는 다양한 직업적 분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등적 배분 및 라이프스타일의 분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시기에 태어난 현재의 청년세대(1980-90년대생)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부모들을 가진 첫 번째 세대이며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편차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첫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청년층의 가족 배경의 광범위한 차이는 노동시장, 가족 형성을 둘러싼 다양한 계기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 내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기회구조를 형태지우는 또다른 균열의 원천들, 젠더와 노동시장 위치 등과 상호작용하며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복잡성(complexity)를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 2장에서는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통해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의 거시적 조건을 논의하고 청년층 내 기회불평등을 낳는 균열의 원천으로서의 가족, 젠더, 분절 노동시장의 때로는 독립적인 때로는 상호작용하는 효과들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자료와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불평등의 양상을 가족배경, 성별, 노동시장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기술통계들을 통해 확인하고, 5장에서는 가족 형성에서의 기회불평등의 양상을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청년층 내부에서 기회공정성 및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치적 태도, 삶의 만족도 등에서 다른 어떤 연령집단에서보다 큰 차이를 낳고 있는 가족 배경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7장에서의 토론으로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2.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관점

오늘날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구미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높은 실업율, 높은 비전형적인 주변부 일자리 취업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의 글로벌화, 신자유주의적 고용구조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등 거시경제적 변화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최근 코호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산업사회들에서 50-70년대 이른바 황금의 30년 기간 동안에 노동시장에 입직했던 세대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시장에 입직한 세대 간에는 기회구조의 세대 간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의 순환에 따라 행운의 세대(lucky generation)과 불운의 세대(less lucky generation)의 순차적 반복이 세대 간 격차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Myles, 2002).

그러나 실제 구미 각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은 공적부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 복지 정책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Chauvel, 2010; Chauvel and Schroder, 2014).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의 위험을 유연하게 용납하되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재교육을 통해 삶의 질의 하락을 막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률, 평균임금 등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반면 복지정책이 사회보험 가입자들을 경기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나 가족주의적 복지국가(합쳐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으며 복지정책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중장년층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고용과 연동되어 있는 복지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의 격차도 매우 커 ‘내부자 세대’와 ‘외부자 세대’ 간의 불평등이 큰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기존 입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없는 미국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노동시장 내에서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여파를 시장을 통한 임금가격 조정 기제를 통해 상당히 해소하여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적은 편이나 각 세대 내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큰 편이다. 쇼블과 슈뢰더는 (Chauvel and Schroder, 2014) 유럽국가들에 대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 사민주의적,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에 비해 1975년 경기후퇴기의 시작 이전과 이후 세대 간 실업을 및 생애소득의 격차가 특별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세대 간 격차는 경기후퇴기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경제가 호황이거나 성장 중일 때는 세대 간 격차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소득이전 기제들을 통해 쉽게 조정된다. 경제불황기 혹은 구조조정기에 발생하게 되는 세대 간 기회구조의 격차는 그러나 국가의 역할을 통해 완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이때 국가 역할의 핵심은 기존 노동시장 재직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국가가 노동시장 재직자들을 보호하는 (기존의) 정책들을 고수할 경우 재직자들과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과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보수주의형 세대 갈등이 심각해지게 된다. 한국은 내부자 세대와 외부자 세대 간의 세대 간 불평등이 큰 보수주의적 복지국가형과는 달리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큰 미국형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에서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특징을 보면 제조업에서 경제적 자원 및 노조의 조직력이 집중된 대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이 축소, 유지되어 온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조직적 내부자(organizational insiders)를 보호하는 내부노동시장의 제도적 장치들이 형해화되어 왔으며(김영미, 한준, 2008; 약간 상이한 관점으로는 정이환, 2015), 둘째 사회보험 등 국가의 복지제도도 역사가 짧아 장기적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구조조정기의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코호트가 있기 어렵고 모든 코호트가 경기불황의 여파를 받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된다.

2) 청년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원천: 가족, 젠더, 분절노동시장

한국에서 청년층의 세대 내 기회불평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산업자본주의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경제적 호황기(1980-90년대)에 태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대중소비가 확산되는 시기에 유소년기를 보내다가 10대 사춘기 시기에 금융위기를 맞은 후 경제불황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60년대 1차 산업 중심의 경제에서 7-8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탈산업화를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다양화된 직업적 성취에 따른 계층 분화가 본격화된 1980-90년대에 자녀를 출산한 현재의 중장년층(1950-1960년대 생)의 자녀 세대이기도 하다. 에릭슨, 골드소프 등 세대 간 사회이동 분석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사회는 초기에 산업화라는 대규모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구조적 이동의 증가로 세대 간 사회이동이 증가하다가 산업화가 성숙해질수록 구조적 이동(structural mobility)은 감소하고 세대 간 사회이동의 개방성(exchange mobility)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른바 ‘지속적 유동성(constant flux)’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Erikson et al., 1992). 한국의 산업화 경험 속에서 보자면 1980년대-1990년대는 급속한 사회이동이 완료되고 지속적 유동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단계의 초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청년층은 그 전의 어떤 세대 보다도 다양한 직업군의 부모들을 갖게 된 첫 세대이며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큰 격차와 라이프스타일의 분화가 당연시된 사회에서 사회화의 주요시기인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첫 세대이다. 현재 청년층이 갖고 있는 가족 배경의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이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들 보다는 훨씬 계층화된 기회구조 속에서 사회화과정을 겪었으리라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코호트-특정적 조건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가족형성을 둘러싼 다양한 계기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경험적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기회구조를 특정한 방식으로 형태지우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젠더이다. 주된 활동이 공간이 성적 중심의 능력주의적 평가와 공식 문화로서의 성평등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학교이며 상대적으로 성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청소년기를 보낸 남성과 여성은 청년기에서 매우 성별화된 사회적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교육 성취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어졌으나 경제적 성취에 있어서는 남녀 간 격차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인 한국사회에서 청년 여성들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이미 남성을 앞지를 정도로 교육 성취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한국교육의 우등생이 한국의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열등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 모순적 상황의 이면에는 공고한 젠더구조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공식 생산의 영역과 사적 재생산의 영역을 구분하고 성별화하는 프레이밍으로서의 젠더의 문제는(Ridgeway, 2011)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젠더구조는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제제도, 돌봄의 사회화도 충분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제도적 조건(Chang, 2004) 속에서 큰 변화없이 온존하고 있다. 이 속에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돌봄의 젠더 불균형

은 여성들을 직장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2등 직원, 열등한 근로자로 만들고 있다. 생애과정 상 결혼, 출산, 양육 등이 집중되어 있는 청년기는 여성들의 일-가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극심한 갈등 속에서 여성들의 비자발적, 반자발적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여성의 경력단절은 성별화된 규범이 강하여 일-가족 갈등이 심한 환경에 있을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성의 경제활동의 고조기에 많은 청년 여성은 경력단절, 경제활동의 중단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청년 내 남성과 여성의 기회불평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경제적 성취에서의 성별 기회불평등은 곧 남성과 여성의 생애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연금 등 사회보험 접근권에서의 차이로 인한 은퇴 후 노년기에서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성별화된 프레임은 청년의 가족형성의 기회불평등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남성성이 생계부양자 역할로, 여성성이 모성으로 등치될 때 이로부터 이탈된 남성과 여성은 연애 및 결혼상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일자리구조 역시 청년 내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건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고용구조조정의 핵심은 수량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대규모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의 분사화, 외주화로 대기업의 고용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위계적 원하청 권력관계로 묶여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증가하였다. 대기업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 간의 이동이 거의 없는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청년층은 첫직장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생애소득과 사회적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층 내에서 노동시장 위치에 따라 경제적 보상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젠더, 분절적 노동시장이라는 조건들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층 내 기회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세대 내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태, 특히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불평등의 복잡성은 쉽게 예측되지 않으며 귀납적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배경, 젠더, 노동시장 위치 등을 주요 변수로 청년층 내 일과 가족형성의 기회 불평등을 분석하되 학력, 학벌, 지역 등의 보조적 변수들도 사안에 따라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에서는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3. 연구자료와 방법, 청년층의 내부구성

이 연구는 동그라미재단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기회불평등조사는 2016년 전국 만17세 이상 만 74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비례할당(성/지역/연령)하여 표집 후 웹서베이(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한 자료이다. 표집틀로 이용된 한국리서치의 MS(Master Sample Panel)은 전국적으로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분포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한 33만명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청

의 국가승인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활용된 바 있다(통계청,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2009-2015).

청년에 대한 정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포괄하는 연령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유동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를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입직하여 독립적 생계부양을 시작하며 가족형성을 도모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로 정의하며, 이 연구에서 청년은 20세에서 39세로 정의한다(Lothaller, 2010 참고). 청년기의 상위한계를 39세로 정한 것은 최근 입직의 지연, 만혼, 만산 등 생애과정의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사례 3520명의 응답자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32%(1122명)이다. 모집단의 성/지역/연령 분포를 반영한 가중치가 제공되어 있으며 모든 분석 결과에 적용되었다.

청년기 기회 불평등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 청년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주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가족 배경과 젠더 그리고 노동시장 위치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노동시장 입직을 마친 상태이며 본인의 노동시장 위치에 따른 계층 분류가 가능하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성취 및 가족형성, 사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계층은 본인의 가족 배경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응답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홀링스헤드(Hallingshead, 1975)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Socio-Economic Status Index, 이하 SES)를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아버지가 생계부양자, 어머니가 가정주부였던 가구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에 부여한 위계적 점수와 교육수준에 부여한 위계적 점수의 가중합, 맞벌이가구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직업 점수와 교육 점수의 가중합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변수는 본인의 성취에 기반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성장기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 속에서 사회화되었으며 기회의 제약을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지역은 크게 서울지역, 인천경기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표1> 청년층(20세-39세)의 내부 구성

변수	전체 평균	남성 평균	여성 평균
여성	0.48		
고졸이하	0.15	0.14	0.15
전문대졸	0.35	0.36	0.33
대졸	0.40	0.38	0.42
대졸이상	0.10	0.11	0.09
취업자	0.60	0.63	0.56
취업자 중 정규직	0.73	0.75	0.71
비정규직	0.20	0.16	0.25
자영업	0.07	0.09	0.04
구직자	0.21	0.21	0.21

비경제활동	0.19	0.16	0.23
소득	242.96	269.56	211.03
서울	0.22	0.21	0.22
인천 경기	0.31	0.31	0.31
영남권	0.25	0.25	0.24
기타 지역	0.23	0.22	0.23
기혼	0.38	0.33	0.43
가족 배경(SEs Index)	37.92	37.88	37.96
하층	0.20	0.21	0.20
중간층	0.35	0.31	0.37
상층	0.45	0.48	0.43

<표1>은 청년층의 내적 구성을 학력, 경제활동, 소득, 지역, 혼인상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전체의 48%가 여성으로 남성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지금의 2-30대는 성감별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남녀 성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커졌던 1980년대-9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로, 이러한 청년층의 남초 현상은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인구학적 성비 불균형은 청년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연애,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가족 형성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학력분포를 보면 청년층은 50%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히 고학력화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학력화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율은 60%이며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청년은 21%, 학업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은 19% 정도이다. 고용율에서의 남녀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남성은 63%가 취업 상태인데 반해 여성은 56%에 그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정규직은 73%, 비정규직은 20% 정도이며 7%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취업자 내부 구성의 남녀 차이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일 정도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16%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청년층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3만원 정도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약 270만원 정도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211만원 정도로 남녀 간 격차가 있으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약 78%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의 여성 임금비율이 약 63%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에서의 젠더 격차는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분포를 보면 청년층은 특징적으로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자가 집중되어 있다. 31%가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2%가 서울에, 25%가 영남권에 23%가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 분포에서의 성별 격차는 거의 없다.

청년층 중 기혼자는 38%이다. 세부 연령집단으로 보면 20대(20-29세)에서의 기혼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며 성별 격차도 매우 커 20대 남성의 기혼율은 2%, 여성은 7% 정

도이다. 30대(30-39세)의 기혼비율은 67% 정도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1976년에서 198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39세까지도 혼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 격차 역시 큰 편으로 30대 여성의 경우 기혼비율은 74%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12%p가 낮은 62%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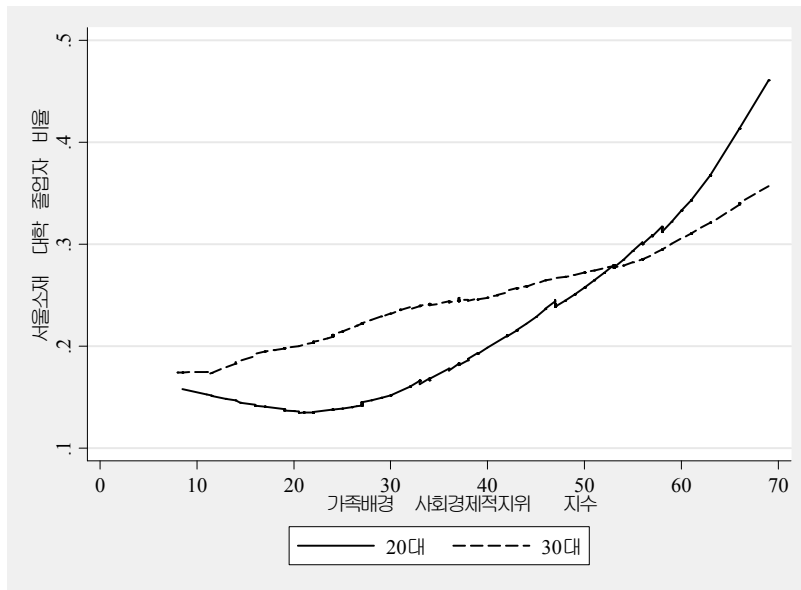
홀링스헤드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는 청년층 전체 평균이 37.92 (표준편차 15.07)이며 남녀 간의 격차는 거의 없다.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평균 33.63(표준편차 13.48), 4-50대 중장년층은 33.88(표준편차 14.31)이며 10대 청소년층은 42.06(표준편차 14.76)으로 최근세대로 올수록 SES 평균은 증가하고 표준편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 SES 지수를 연속변수로 쓰기도 하고 하층, 중간층, 상층, 세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때 세 집단 범주화의 기준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각 세대 표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는 SES 절대값의 효과를 강조한 경우이며 후자는 각 세대 내 상대적 위치의 효과를 강조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 비교를 위해서 전자의 분류방식을 택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SES 값을 삼등분하여 세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따라서 SES 평균이 증가한 청년층에서는 하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 불평등

이 장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과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한다. 현재의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이미 학력 성취 및 대학생활의 경험 등에서 상당히 계층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집단의 대학진학율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 여부 자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서열화된 대학구조 속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대학에 진학하느냐 여부 보다는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¹⁾.

<그림1>은 응답자의 가족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과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LOWESS(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 curve) 평활 곡선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가 높은 가족에서 자란 응답자일수록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배경과 학벌의 연관성은 30대 보다 20대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가족배경과 서울소재대학 졸업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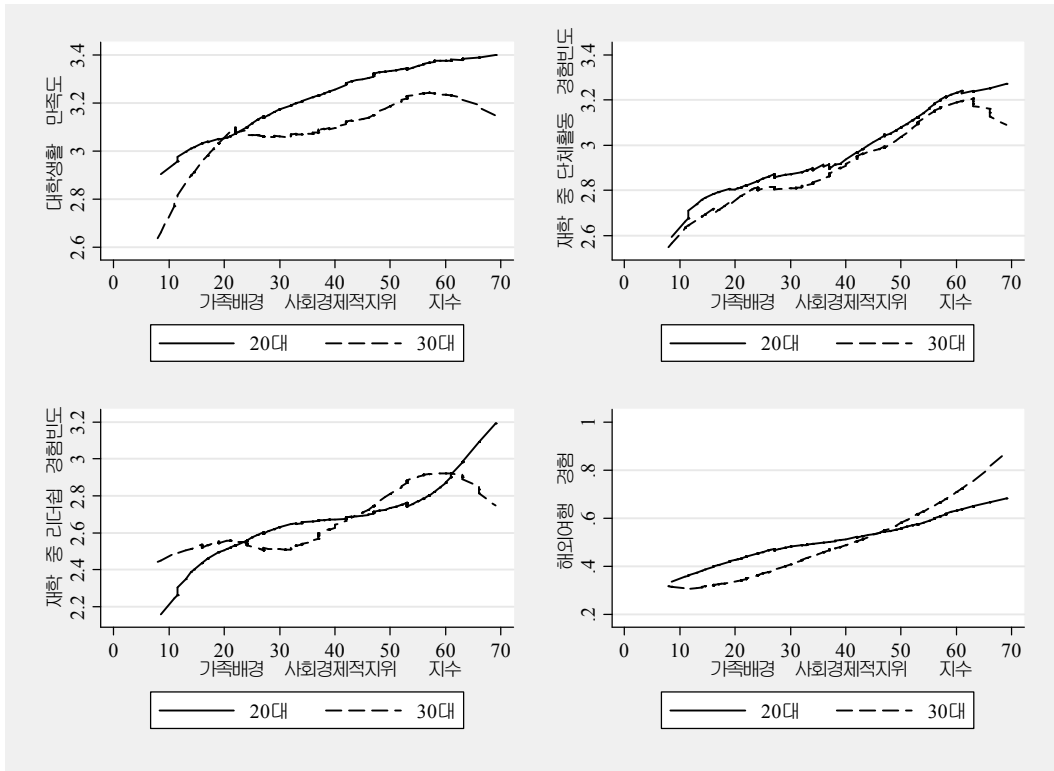


가족 배경은 청년들의 대학생활(2년제, 4년제 모두 포함) 경험에서도 큰 차이를 낳고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년들이 더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30대보다 20대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동아리 등 단체활동의 경험 빈도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의 선형적인

1)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보면 청년층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에 미치는 효과 보다는 학벌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대학진학률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중간층, 상층이 각각 36%, 44%, 44%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보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위대학, 여기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비율을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의 경우 13%에 그치는 반면 중간층에서는 15%, 상층에서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를 보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청년이 단체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 재학 중 리더의 위치에 서 본 리더쉽 경험 빈도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20대에 어학연수 등 해외여행을 경험해본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한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2> 가족배경과 대학생활 경험의 격차



주1)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생활에 만족하였는가하는 질문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 단체활동빈도는 대학생활 중 교내외 동아리 등 단체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리더쉽 경험빈도는 대학생활 중 리더에 서 본 경험을 얼마나 하였는가하는 질문에 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4) 해외여행은 20대에 외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없으면 0, 있으면 1, 더 미변수로 측정된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연구 자료에 기초해서 청년층 고용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0대 청년층 남성의 고용율은 63%이며 실업 등으로 인한 구직자의 비율은 20%,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6% 정도이다. 반면 청년층 여성의 고용율은 56%로 남성에 비해 7%p 낮고 구직자 비율은 21%,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3% 정도이다. 구직자는 남녀 모두 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경우에 학업과 군대 등으로 인해 20대에, 여성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증가하는 30대에 집중되어 있다.

<표2>는 가족 배경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학업과 경제활동이 혼

재되어 있는 20대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의 청년일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30대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청년일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0대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용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의 경우 58%, 상층의 경우 71%). 여성들의 경우 출산, 육아가 집중되어 있는 30대에 경력 단절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가족 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2> 가족배경과 경제활동

경제활동	20대			30대		
	취업	구직	비경활	취업	구직	비경활
남성						
하층	44%	25%	31%	90%	9%	1%
중간층	32%	45%	24%	91%	8%	1%
상층	34%	28%	38%	93%	7%	0%
여성						
하층	54%	40%	6%	58%	10%	32%
중간층	55%	28%	18%	61%	5%	34%
상층	43%	43%	14%	71%	5%	24%

청년층 사이에서는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 기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대졸 및 대졸 이상의 경우 고용율이 80% 정도인데 반해 고졸 이하의 고용율은 62%, 특히 전문대 졸의 고용율은 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학력에 따른 고용율의 차이는 있으나 남성만큼 크지는 않다.

<표3> 청년층 내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남성			여성		
	취업율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취업율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전체	63%	20%	16%	56%	21%	23%
고졸이하	62%	20%	18%	53%	14%	32%
전문대졸	40%	28%	32%	49%	27%	24%
대졸	81%	18%	1%	61%	21%	18%
대졸이상	80%	6%	14%	67%	10%	24%

한편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제활동의 기회 불평등을 낳는 또 다른 조건이 지역이다. <표4>은 지역 별로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 실업율, 비경제활동율을 보여 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지역 간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

는 지역 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남권 청년층 여성의 고용율(48%)은 서울지역 청년층 여성의 고용율(65%)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여성의 출산, 육아기 경력 단절 문제는 잘 알려져 있는 바이나 여성 경력 단절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남권 청년 여성들의 고용율이 눈에 띄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별화된 규범이 강한 환경에서 청년여성의 일-가족 갈등이 더욱 심각하며 이것이 청년여성의 빈번한 경력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영남지역의 문화적 환경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가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규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4> 청년층 내 성별, 지역별 경제활동의 차이

	남성			여성		
	취업율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취업율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전체	63%	20%	16%	56%	21%	23%
서울	63%	19%	18%	65%	18%	17%
인천경기	65%	20%	16%	60%	18%	23%
영남권	64%	19%	18%	48%	24%	28%
기타지역	61%	25%	14%	51%	26%	23%

이상의 기술 통계들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가족 배경과 학력, 성별,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고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고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도, 불안정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분절적인 노동시장 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의 질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초입에 있는, 따라서 인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경력의 격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단 내 소득 이질성이 작은 청년층 내에서도 노동시장 내 위치에 따른 임금 격차를 악화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표5>은 청년층 내 취업자의 내부 구성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평균 임금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한 청년남성의 75%, 여성의 71%가 정규직으로 취업 중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 남성의 경우 16%, 여성의 경우 25%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10%p 가까이 높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91만원인데 반해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179만원으로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 남성 소득의 6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222만원, 비정규직은 162만원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여성 소득의 73% 수준을 받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소득은 남성 정규직 소득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내 종사상 지위와 성별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5> 성별 취업자 내부 구성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남성	75%	16%	9%
여성	71%	25%	4%
월평균 소득 (만원)			
남성	291	179	259
여성	222	162	333

청년층 내에서는 학력에 따른 취업의 질에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표6>은 정규직 비율과 평균 소득으로 정의된 취업의 질의 학력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64% 정도이며 월평균 소득은 225만원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대졸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68%, 평균소득은 229만원에 머물러 있는 반면 대졸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82%, 평균 소득은 292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원졸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평균소득은 302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에 학력별 정규직 비율은 대졸 집단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편이다. 대졸 집단의 경우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73%에 머물러 있어 대졸 남성과의 차이가 거의 10%p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 간 평균 소득의 격차는 나타나지만 남성집단 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대졸이 고졸이하에 비해 1.3배 정도 소득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2배 정도이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우 모든 학력 집단에서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표6 > 학력별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

	남성		여성	
	정규직 비율	평균소득	정규직 비율	평균소득
고졸이하	64%	225	68%	184
전문대졸	68%	229	68%	188
대졸	82%	292	73%	223
대학원졸	71%	302	74%	258

2) 청년층 내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자 내에서도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율과 소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남성의 경우 서울 소재대학 졸업자들의 고용율은 66% 정도이며,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77%, 월평균 소득은 301만원 정도인 데 반해 지방사립대 졸업자들의 고용율은 55%,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66%, 평균 소득은 224만원에 그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의 고용율은 54%,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70%, 평균소득은 250만원 수준이며 지방사립대 졸업자의 고용율은 58%,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67%로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들과 비슷한 편이지만 평균 소득은 18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별 간의 임금 격차도 매우 뚜렷하며 성별 내부에 출신 대학 별 임금 격차도 뚜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5. 청년층의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

최근 청년층을 둘러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담론은 청년층 일반이 기성세대들과 비교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세대 간 기회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세대 간 혼인율, 출산율의 차이는 가족 형성 기회의 제약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청년층 내에서 ‘삼포’ 현상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가족 형성과 관련된 이벤트들의 경험, 태도(혹은 선호) 등에 있어서도 청년들은 상당한 내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가족 배경과 학력, 노동시장 위치, 성별은 가족 형성 기회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균열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별은 청년 집단 내 인구학적 행태의 차이를 낳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 가족 배경, 노동시장 지위 등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동학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표7>은 성별, 학력별로 연애 경험 및 결혼/자녀에 대한 태도의 평균을 비교하고 있다. 미혼자들 중 한 번도 데이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5%, 여성의 경우 10%이다. 앞으로 결혼을 할 것 같으냐 하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미혼자들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4%, 여성의 경우는 약간 더 높은 16% 정도이다.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 같으냐 하는 질문에 0명이라고 답한 경우는 미혼 청년 남성들은 12%, 미혼 청년 여성들은 18%로 청년 여성들이 결혼 및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과 성별의 교호작용인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데이트 경험도 없고 결혼 의사, 자녀 의사도 낮은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 데이트 경험을 제외하고는 결혼 의사, 자녀 의사에 있어 학력 간 차이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출신대학 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데이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16%,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10% 수준으로 지방 소재 대학의 미혼 청년남성들의 데이트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출신대학 별로 결혼의사나 자녀의사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서울소재 대학 출신의 경우 결혼의사나 자녀의사가 낮은 비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7> 미혼 청년층의 성별, 학력별 연애,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남성			여성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전체평균	15%	14%	12%	10%	16%	18%	
고졸이하	20%	16%	11%	11%	11%	10%	
전문대졸	22%	18%	16%	17%	20%	24%	
대졸	9%	13%	11%	7%	15%	18%	
대학원졸	3%	2%	5%	0%	16%	14%	
전문대 이상	지방소재	16%	14%	12%	10%	15%	17%
	서울소재	10%	14%	12%	12%	20%	23%

<표8>은 성별, 노동시장 지위별로 연애 경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미혼 청년들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 중인 미혼청년들은 데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가 4%에 불과한 데 반해 비정규직 취업자들은 그 비율이 두 배 이상인 10%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 없이 구직 중인 경우에도 데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7%나 되지만 비경제활동 중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35%로 늘어난다.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비정규직, 구직 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 정규직 취업자들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결혼의사도 자녀의사도 없는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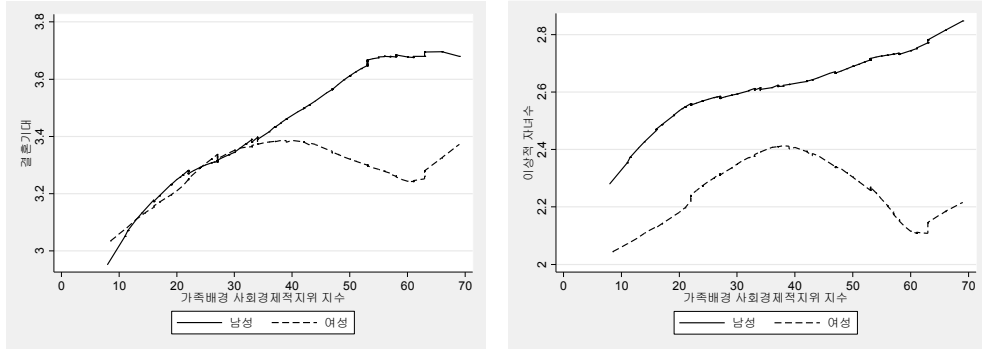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데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데이트 경험이나 결혼의사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의사가 정규직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구직 중인 미혼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와 비슷한 비율로 데이트 경험이 없는 비율도 높고 결혼의사나 자녀 의사가 없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성과 달리 그 비율들이 낮은 편이며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낮은 편이다.

<표8> 미혼 청년층의 성별, 노동시장 지위별 연애,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남성			여성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전체평균	15%	14%	12%	10%	16%	18%
정규직	4%	8%	5%	5%	16%	14%
비정규직	10%	14%	10%	5%	16%	21%
자영업	3%	9%	12%	8%	33%	25%
구직중	27%	24%	21%	27%	26%	34%
비경제활동	35%	19%	21%	7%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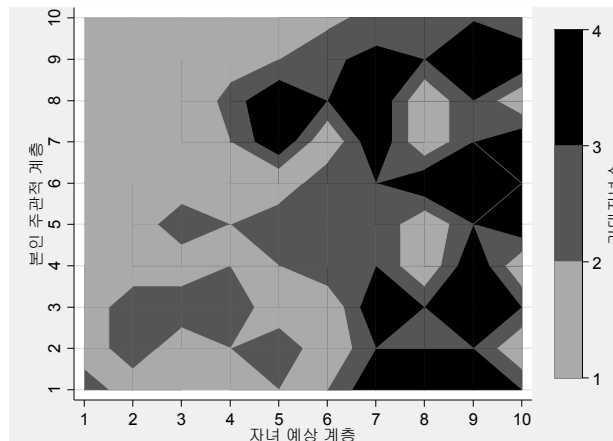
한편 미혼 청년층 사이에서 가족 형성과 관련된 기회의 불평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또다른 조건은 가족 배경이다. <그림3>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결혼 의사, 자녀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의사는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자녀의사는 ‘앞으로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0명(무자녀)을 포함해 예상 자녀수를 응답한 문항으로 측정한 것이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패턴은 남성의 경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간에 거의 선형적인 관계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배경과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간에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 배경이 높을수록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다가 가족 배경이 중간층을 넘어 상층으로 가면 오히려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역 U자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 성별, 가족 배경 별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청년들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기대에는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 세대에 대한 전망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현재 본인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결혼과 자녀에 더 적극적인 긍정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는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은 자신의 주관적 계층과 자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기대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등고선 그래프(contour graph)의 Y축은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1(매우 낮음)에서 10(매우 높음) 10점 척도에서 선택하게 하여 측정한 주관적 계층이다. X축은 자녀가 자신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한 자녀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이다. 10X10 교차표의 각 셀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의 기대 자녀수의 평균을 구하여 비슷한 평균값끼리 등고선을 그려본 것이다. 가장 옅은 회색은 기대 자녀수가 0명-2명 사이, 중간 회색은 2명-3명, 짙은 회색은 3명 이상인 경우이다. 기대자녀수가 높은 짙은 회색이 주로 분포해 있는 곳은 주로 자녀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높은 셀들이다. 본인의 주관적 계층과 자녀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높은 경우도 기대 자녀수가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관적 계층이 낮더라도 자녀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높은 경우에 기대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그림4>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의 기대와 기대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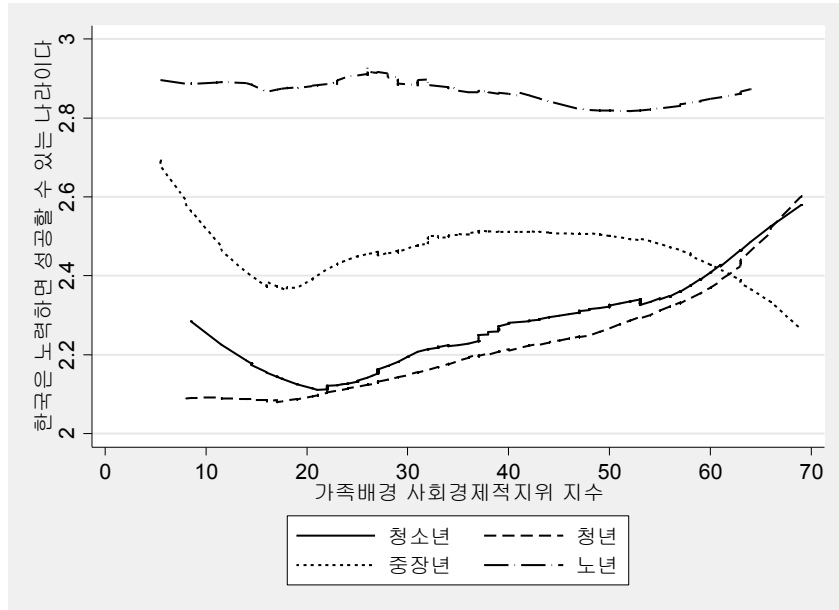
이러한 패턴은 미혼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 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높은 경우 본인의 결혼가능성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표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 자녀에 대해 적극적이며 그렇지 않을수록 소극적인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차이 없이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 인식의 세대 내 차이

앞서의 분석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노동시장 기회 및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 청년층 내부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며, 성별, 학력(학벌), 지역, 그리고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내부의 기회구조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주관적 측면에서의 청년층 내부 변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 기회불평등을 낳는 요인들이 청년들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치적 태도 등에도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경향성은 한국 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인식,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등은 가족 배경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장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5>은 가족 배경과 기회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를 세대 별로 비교하고 있다. 한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기회공정성 인식이 응답자의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본 것이다. 노년층의 경우는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가족 배경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년의 경우에도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노년층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때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족 배경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다. 청년층은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집단이며 기회공정성 인식은 가족배경과 선형적인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내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공정성 인식의 격차는 매우 큰 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60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족 배경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태에 있는 중년층 보다 한국의 기회공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청소년층도 청년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5> 세대별 가족배경과 기회공정성 인식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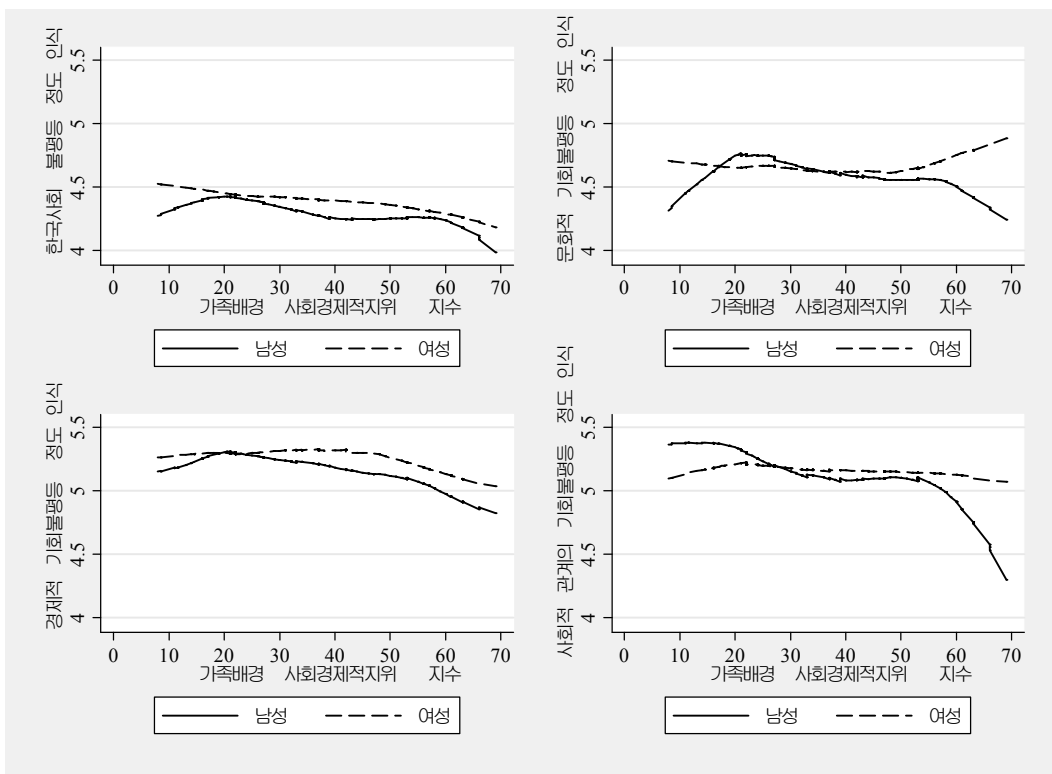
한국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가족 배경 외에 학력, 지역,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을 청년층과 장노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것이 <표9>이다. 가족 배경이 높을수록 기회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원졸을 제외하고는) 기회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울 보다는 지역에서(기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회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 배경을 제외하면 학력, 지역 등은 기회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층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9> 한국사회 기회공정성에 대한 세대, 성별, 가족배경, 학력, 지역 간 차이

	청년기(20-30대)		장노년기(40대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족배경				
하층	2.08	2.02	2.47	2.59
중간층	2.35	2.07	2.57	2.70
상층	2.38	2.22	2.58	2.57
학력				
고졸이하	2.37	2.12	2.62	2.70
전문대졸	2.29	2.10	2.50	2.47
대졸	2.26	2.07	2.39	2.50
대졸이상	2.31	2.25	2.61	2.71
지역				
서울	2.29	1.99	2.67	2.47
인천경기	2.30	2.07	2.43	2.52
영남권	2.33	2.15	2.59	2.74
기타지역	2.25	2.23	2.55	2.72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젊은 세대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 내부의 객관적 기회구조의 불평등이 주관적 인식에서의 격차로 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다른 항목들에서도 청년층 내부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그림6>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한국의 전반적인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는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두 번째는 문화향유의 기회 불평등이, 세 번째는 취업과 진급에서의 기회불평등이, 네 번째는 인맥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기회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기회불평등의 세부영역에 따라 심각도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상이하며 청년들은 특히 취업과 진급에서의 기회불평등과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족 배경이 높을수록 기회불평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턴은 문화적 기회불평등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반응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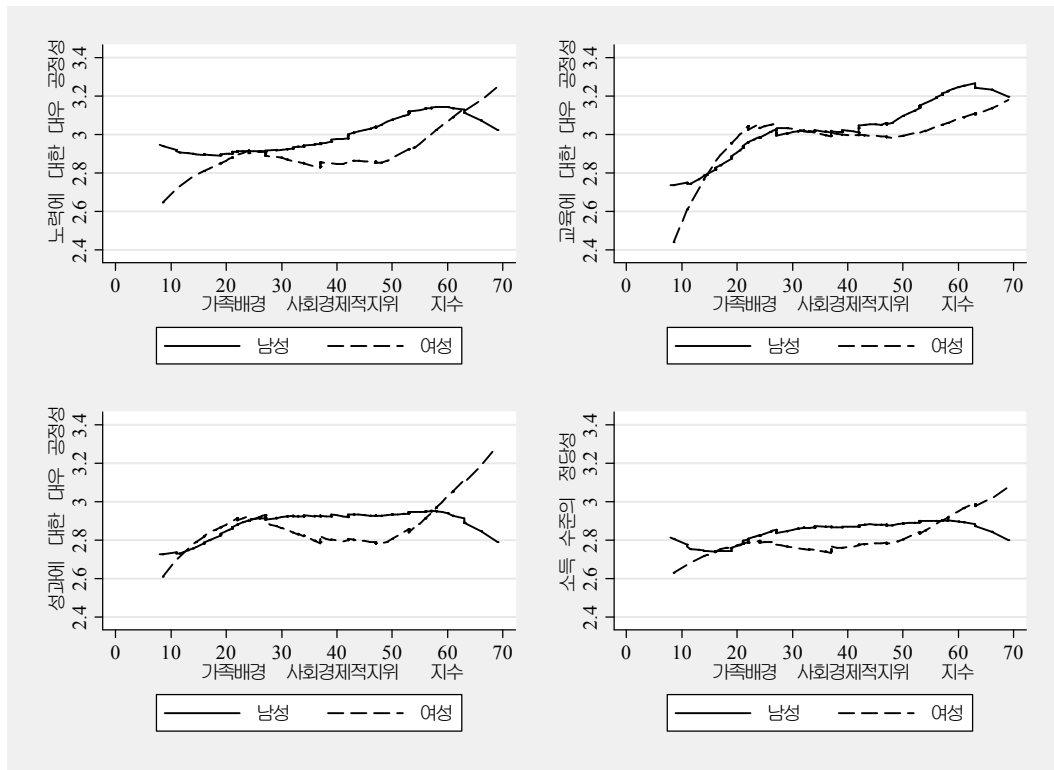
<그림6> 청년층 내 가족배경과 주관적 불평등 인식의 관계



한편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취업자들 중 응답자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족 배경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 <그림7>이다. 본인의 노력, 교육 수준, 성과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대우 공정성과 본인의

현재 소득수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소득수준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가족 배경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의 청년일수록 본인의 노력, 교육수준, 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에 가족 배경에 따른 대우공정성 평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인의 현재 소득수준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이 3점 이하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 역시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가족 배경과 대우 공정성 인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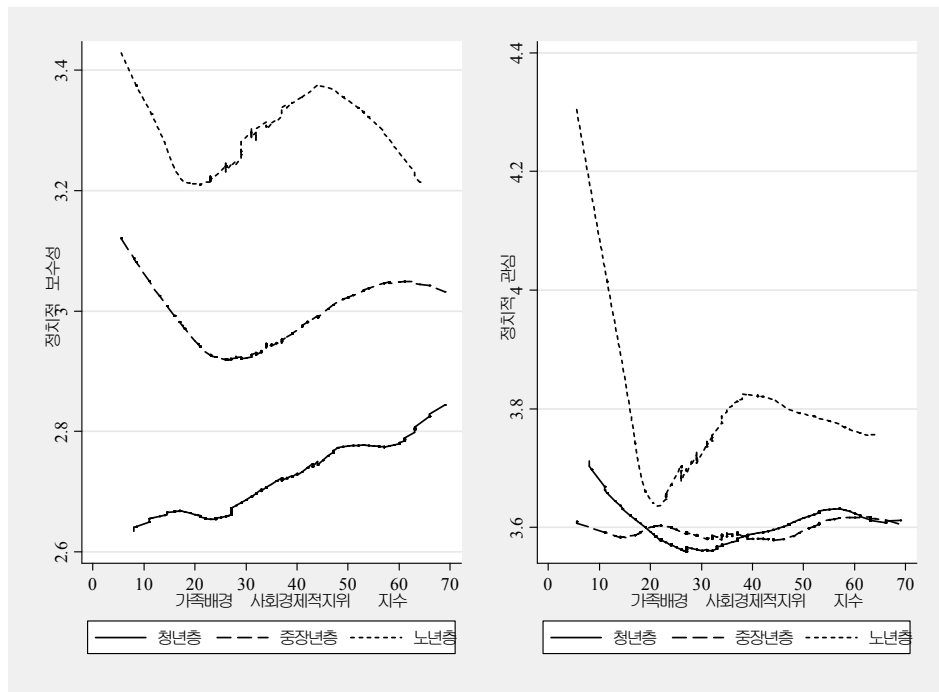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족 배경이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적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은 장노년층에 비해 단연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편이다. 그러나 청년층 내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 성향의 차이는 어느 연령집단보다도 뚜렷하게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림8>은 연령집단 별로 가족 배경에 따른 정치적 성향(1. 매우 진보적에서 5. 매우 보수적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변수)과 정치적 관심(1. 전혀 없다에서 5. 매우 많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응답자일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가족 배경과 정치적 성향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이며 가족 배경이 가

장 낮은 집단에서의 정치적 보수성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에서는 가족 배경과 정치적 보수성 간의 선형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의 세대 간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의 세대 간의 정치성향의 차이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치적 관심도는 노년층이 단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정치적 관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흥미롭게도 중장년층을 제외한 노년층과 청년층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정치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성향에서 가장 보수적이고(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년층) 가장 진보적인(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층) 두 집단이 정치적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례적인 이 패턴을 제외한다면 각 세대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경향성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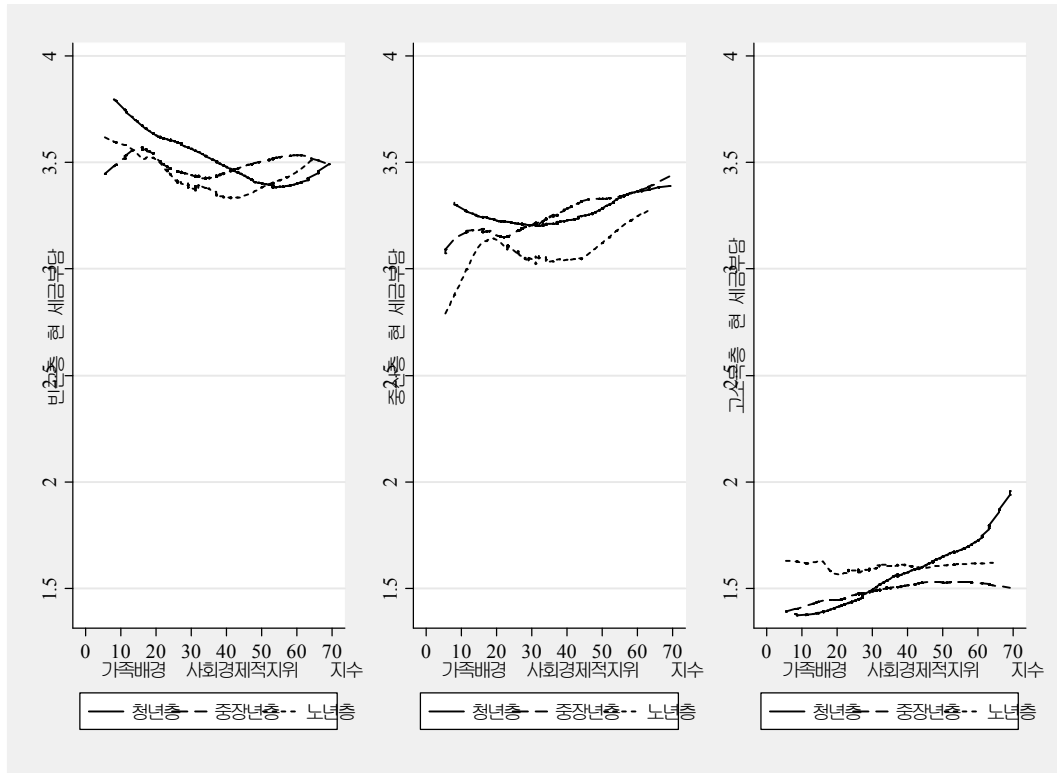
<그림8> 청년층 내 가족배경과 정치적 성향, 정치적 관심의 관계



청년층에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 배경과 정치적 보수성과의 관계는 계층 별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어진다. <그림9>은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의 현재 세금 부담의 적절성에 대해서 1. 매우 적다에서 5. 매우 많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들에 대해 세대와 가족 배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빈곤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고 부유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데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각 세대 내 가족배경의 효과를 보면 청년층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빈

곤충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부유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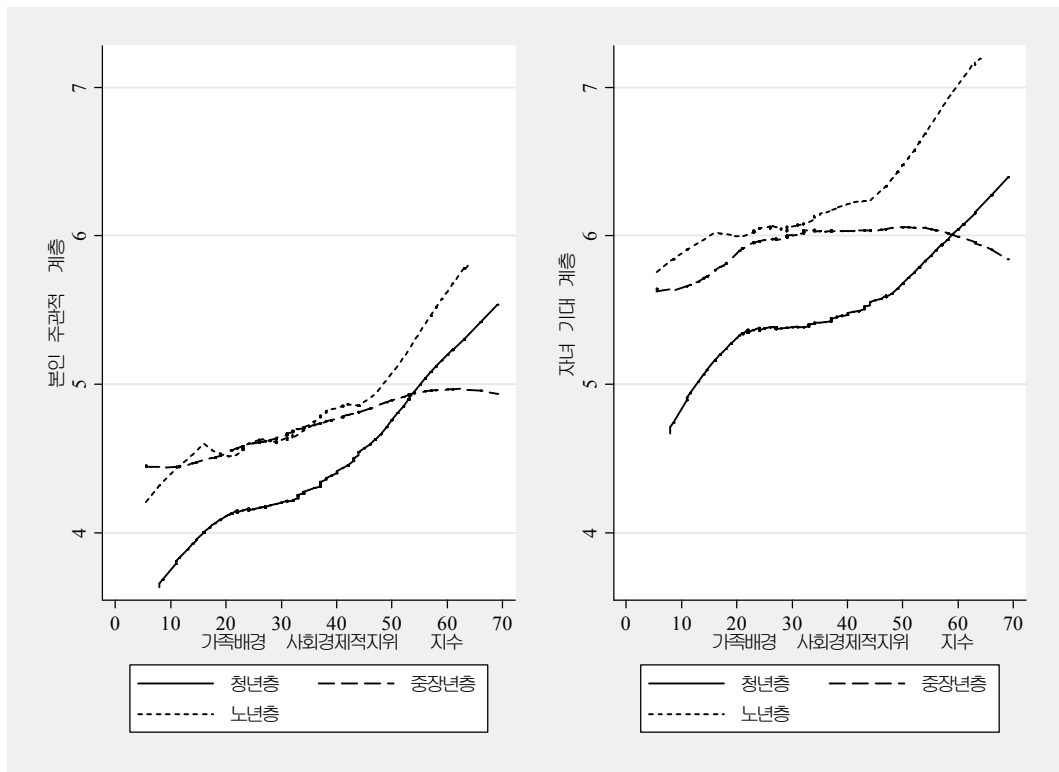
<그림9> 연령집단, 가족배경과 계층별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의 관계



한편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도 청년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10>의 첫 번째 그래프는 가족 배경에 따라 자신의 현재 계층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이 중장년층, 노년층에 비해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 생애과정 상 소득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청년층의 연령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의식 간에는 뚜렷한 선형적 정방향의 선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에서는 선형관계의 기울기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배경이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경우 청년층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평가하는 정도 보다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자녀의 사회적 계층(자녀가(혹은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대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기대가 가족 배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계층에서 자신의 현재 주관적 계층 보다는 자녀의 사회적 계층이 더 높을 것으로 인식하

고 있어 세대 간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층은 중장년층, 노년층에 비해 자녀의 상향이동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청년층도 자신의 현재 주관적 계층 보다는 자녀의 계층을 더 높게 기대하고 있어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정도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층이 세대 간 이동에 가장 비관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청년층 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사회이동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출신의 청년들은 중장년, 노년층에 비해 자녀의 기대 계층 수준이 확연히 낮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중장년층 보다 더 큰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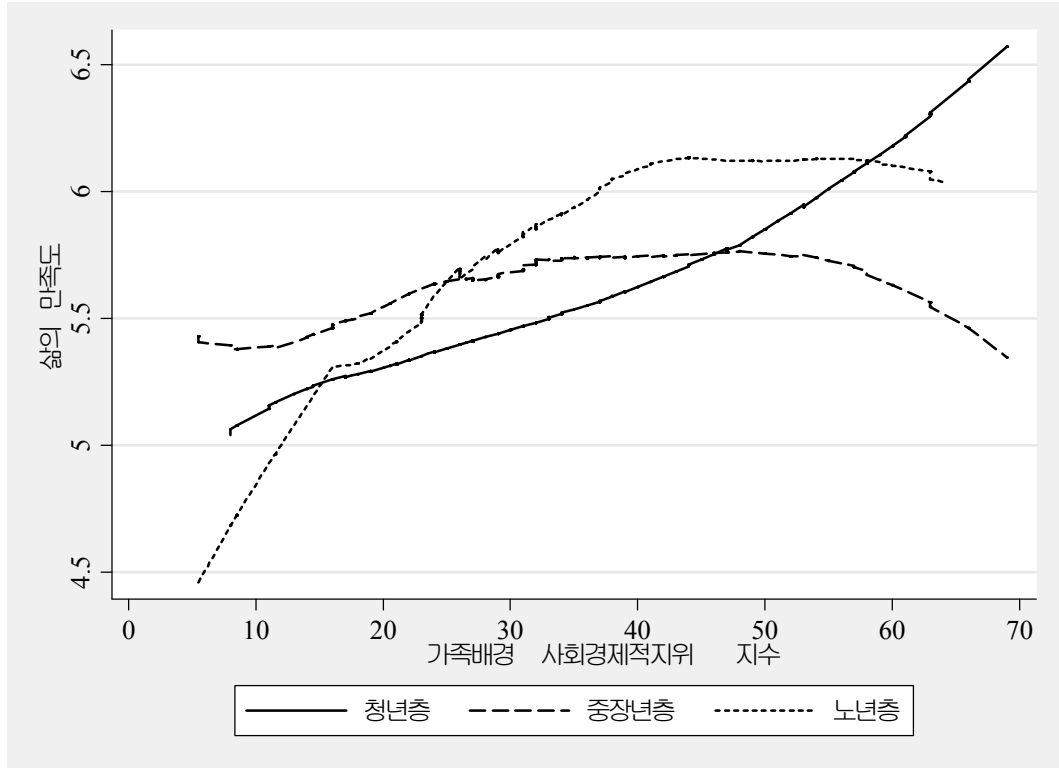
<그림10> 가족배경에 따른 세대 간 사회이동 인식



마지막으로 <그림11>은 삶의 만족도에서의 가족 배경의 영향력을 연령집단 별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귀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가 하는 문항에 대해 10점 척도로 측정된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체의 평균은 5.6점 정도이며 4점-6점 사이에 전체 응답의 5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연령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면 5.63-5.74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림11>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층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족배경과 삶의 만족도 간의 선형적 관계이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에 역-U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정체되

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에서는 뚜렷하게 선형적인 정방향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11> 연령집단 별 가족 배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불평등인식, 기회공정성 인식, 대우공정성인식, 사회이동 인식, 정치성향,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 볼 때 다른 어떤 연령집단에서보다 청년층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선 두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노동시장 기회에서 그리고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청년층의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내 객관적 기회 불평등이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대 내 주관적 인식 차이가 큰 청년층이 세대 내 인식의 차이가 적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동질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7. 토론 및 결론

불확실성의 증가와 탈표준화된 생애과정(Blossfeld et al., 2006), 남성 생계부양-여성 가사돌봄으로 성별분업화된 핵가족모델의 붕괴(Beck, 2002)로 특징지어지는 후기산업사회의 조건 속에서 오늘날 청년기는 ‘인생의 혼잡시간대(the rush hour of life)’로 불리기도 한다(Tremmel et al., 2010). 일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의 시작 시기는 점점 지연되고 있으나 완료 시기는 생물학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복

잡한 시간대에 노동시장에서의 첫 단추와 연애-결혼-출산-육아로 이어지는 가족생활의 첫 단추를 동시에 꿰어야 하는 여성과 남성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청년기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 전반의 삶의 질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드러난 청년기 기회불평등의 양상은 자못 심각하다.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년층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모두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서울소재대학 진학, 대학에서의 경험(리더쉽, 해외연수 등)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의 청년들에 비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취업율)에서도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특히 30대 여성).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데이트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결혼과 출산 의사 등에서도 뚜렷하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특히 남성). 이러한 청년층 세대 내 기회의 격차는 주관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에 반영되어 청년층은 주관적 인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결정력이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젠더 격차이다. 여성과 남성은 교육 성취(학벌, 대학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에서의 성별 격차는 20대 보다는 30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여서도 여성들은 정규직 취업 비율이 낮으며 종사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지위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한편 가족 형성의 기회에 있어 젠더와 학력, 가족배경, 노동시장 지위 등의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데 반해 여성들은 고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특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청년층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낙관주의가 계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은 중장년층, 노년층에 비해 자신의 현재 계층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년, 노년층은 가족 배경과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청년층은 매우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청년층에서는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사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오늘날 청년들을 삼포세대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청년층 내 삼포현상이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다.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불평등 인식 사이를 매개하며 객관적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McCall and Manza, 2011)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청년층의 계층화된 낙관주의는 이 연령층이 객관적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리라 예상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청년층에서 훨씬 더 계층화된 불평등 인식(6장)이 팽배해 있다는 점은 청년층이 동질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현재 청년층이 객관적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세대 내 인식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세력화는 어려

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배경의 효과는 한국사회가 개방적 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적 사회(clo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기회와 가족 형성 기회 모두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족 배경과 젠더 등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누적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도록 청년기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김영미 and 한준, 2008.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 한국사회학, 42(7), pp.111-145.
- 김태기·남재량. 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81-106
- 정이환, 2013.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1982~ 2007. 한국사회학, 47(5), pp.209-240.
- 최을 and 이왕원, 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한국사회학, 49(5), pp.1-44
- Beck, U.,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Vol. 13). Sage.
- Blossfeld, H.P., Klijzing, E., Mills, M. and Kurz, K. eds., 2006.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The losers in a globalizing world. Routledge.
- Chang, M. L. (2004). Growing pains: cross-national variation in sex segregation in sixtee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1), 114-137.
- Chauvel, Louis, and Martin Schröder. "Generational inequalities and welfare regimes." Social forces (2014): sot156.
- Chauvel, Louis. "Comparing welfare regime changes: living standards and the unequal life chances of different birth cohorts." In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pp. 23-36.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0.
-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92.
- Lothaller, H., 2010. On the way to life-domains balance: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In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pp. 109-128). Springer Berlin Heidelberg.
- McCall, L., & Manza, J. (2011). Class differences in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e Oxford Handbook of American Public Opinion and the Media, ed. Robert Shapiro and Lawrence Jacobs. Oxford University Press pp.
- McLanahan, S.,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4), pp.607-627.
- Ridgeway, Cecilia L. Framed by gender: How gender inequality persists in the modern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Tremmel, J., 2009.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Springer.

한국의 기회불평등 : 중장년을 중심으로

신광영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요약문	1
1. 문제제기	2
2. 불평등 기제	3
1) 조건,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	
3. 본인 세대 불평등	4
1) 소득 불평등	
2) 주택과 부채의 불평등	
(1) 주택	
(2) 부채	
3) 일자리 안정	
4. 미래 기회의 불평등	10
1) 교육 투자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	
2) 계층이동: 과거와 미래	
3) 지역 간 계층이동 격차	
4) 생활 만족도	
5. 결론	18

한국의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의 중장년 세대(40-59세) 내의 기회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다룬다. 불평등은 조건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작용하는 불평등은 세 가지 불평등이 인과적으로 겹쳐져서 상호작용한다. 중장년 세대는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소득과 고용의 불평등을 다룬다. 소득은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정규직, 비정규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주택과 부채와 관련된 불평등을 다룬다. 주택은 재산의 의미로서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하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주택 소유와는 반대로 삶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불평등은 자녀 교육과 계층이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가 대단히 크다. 또한 과거의 계층 이동과 비교해서 미래의 계층 이동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자녀의 계층이동의 경우가 부모-본인 계층이동의 경우보다 3배~11배 정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광역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가장 중요한 삶의 만족도 차이의 원인은 소득 수준의 차이로 나타났고, 공정한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1. 문제제기

20세기 후반 들어 한국의 불평등 심화 현상은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 극적으로 심화되어 사회양극화 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나타났다 (유경준, 2011; 신광영 2013).

불평등 논의는 주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불평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획득 기회와 최종적인 소득의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기제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논의는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중장년 세대(40-59세)의 불평등을 논의한다.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중장년은 경제활동이나 가족생활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3가지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과제는 가족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마련하고 일과 관련하여 현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피고용자인 경우에는 직장 내 승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의 증가나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과제는 자녀의 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자녀 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준비이다. 중장년 시기는 생애과정의 단계에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자녀들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중장년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 교육과 훈련에 자원을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보살펴야 하는 학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이다.

셋째 과제는 소득이 없는 본인의 노후에 대비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퇴직 이후의 삶은 퇴직 전에 해 둔 저축이나 각종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통해서만 영위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복지제도가 아직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만큼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노인 빈곤율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2015년에는 49.6%로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12.6%에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운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OECD, 2016: 160).

생애과정에서 중장년의 과제는 어느 세대보다 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과거의 기회와 역량의 축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경로 의존인(path dependent)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중장년 이전 시기인 청년기에 주어진 기회의 결과에 따라서 중장년기 기회(승진)와 결과(소득 획득이나 부의 축적)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평등한 사회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짓는 정도가 낮은 사회이다. 과거 가정 배경이 현

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과거 아동기나 청년기의 환경이 그 이후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정도가 낮아야 한다. 그리하여 공정한 경쟁과 그것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불평등이 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당성도 제고될 수 있다.

2. 불평등 기제

1) 조건,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먼저 기회 평등(equal opportunity)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회 평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희소한 지위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상태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위나 소득을 얻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Rawls 2001: 42-44). 대표적으로 가족 배경과 관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경우,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차이는 자녀들의 선택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차이라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차이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이 결정되는 것은 행위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견해는 운 상쇄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라고 불린다(Cohen, 1989; Arneson, 1999; Dworkin, 2003; Rawls, 1971 and 2001; Roemer, 1998).¹⁾

기회 불평등은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에 주어진 기회 중에서 선택한 것에 의해서 현재의 기회가 영향을 받는다면, 기회 평등의 실질적인 의미는 과거에 주어진 기회 자체가 우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기회의 불평등이 현재 기회의 불평등을 인과적으로 야기하는 경우, 기회 불평등의 연쇄 고리(chain of inequality of opportunity)가 작동하게 된다. 기회 불평등이 시간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회의 불평등도 낳기 때문에, 기회 불평등은 대체로 구조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즉, 불평등이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인과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과거의 불평등을 현재 기회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불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전 이론가인 칼 맑스는 결과의 불평등인 부(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주목을 했고,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기초한 계급 관계이며, 계

1) 부자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라고 불리는 운에 따른 것이다. 개인의 삶이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되고,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운 상쇄 평등주의이다. 운에 의한 불평등을 상쇄하는 것을 강조하는 평등주의라는 의미이다. 신정완

급 간 착취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베버는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희소한 자원(재화나 기술 포함)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활기회의 불평등”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불평등이라고 보았다(Weber, 1978: 302-307).

불평등을 다루는 현대 이론가들은 인정될 있는 불평등과 인정될 수 없는 불평등을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기회와 보상에 대한 전망인 “생활 전망(life-prospect)”의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 기회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Maximin,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wls, 2001: 42-43). 롤스는 자유 시장 체제가 공정한 불평등을 저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인위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만 불공정한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한 불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 체제는 과도한 부의 집중에 따른 정치적 지배를 낳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awls, 2001: 44). 즉, 불평등은 공정한 불평등만으로 구성되는 조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기회의 불평등, 조건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 사회는 각기 다른 많은 종류의 기회 불평등을 특징으로 한다. 게다가 이 기회들은 대부분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겹치고/겹쳐지거나 상호작용한다" (Fishkin 2014: 15). 개인이 태어난 지역이나 가족 환경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개인들에 주어지는 기회(사교육, 대학 입학, 취업, 승진, 결혼 등)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초기적인 조건의 차이가 생애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결과(소득, 주택 소유, 부채 등)의 불평등을 낳고, 그것이 본인의 기회(연금)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다양한 기회(교육, 결혼, 승진, 출산 등)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회 불평등을 다룬다. 하나는 중장년 응답자 당사자들의 기회 불평등을 다룬다. 소득, 주택, 부채와 일자리 안정의 불평등이 본인의 교육 수준과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본인 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인 자녀의 기회 불평등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3세대(부모-본인-자녀)의 주관적 계층이동을 분석하여 과거의 불평등이 미래 자녀 세대의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동그라미재단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3. 본인 세대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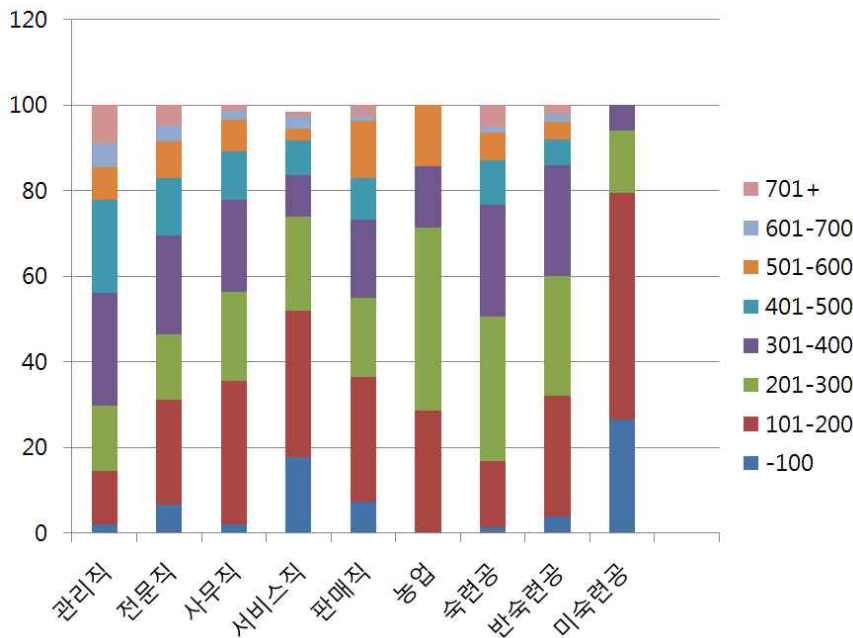
1) 소득 불평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득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평등은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산물이다. 먼저 개인 소득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체계인 계급지위에 따라서

국민 총생산은 이윤(자본가와 자영업자)과 임금(피고용자)으로 나뉜다. 자본가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대체로 기업이나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피고용자들의 임금은 기업규모, 직업과 고용상의 지위(정규직, 비정규직), 학력과 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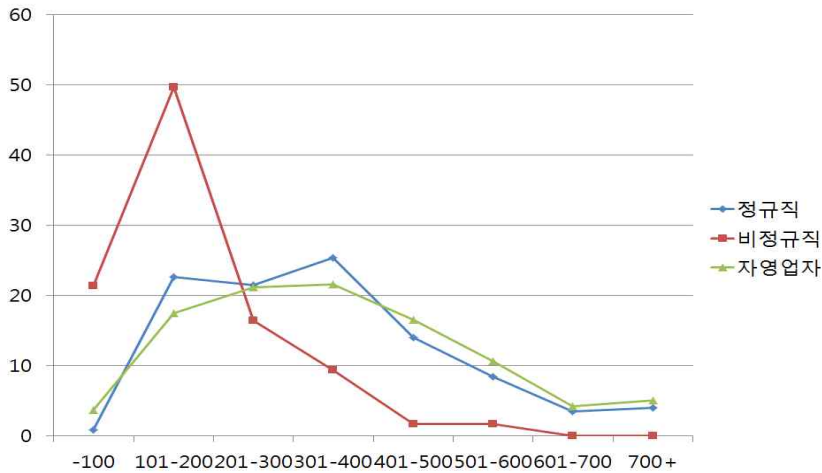
중장년 근로소득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평균적으로 관리직 소득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미숙련 노동자의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직에서도 월 2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있고, 반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2%가 월 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은 직업에 따라서 근로소득의 분포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경우, 숙련 정도에 따른 근로소득의 분포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 월 3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숙련노동자의 55.88%, 반숙련 노동자의 60%, 미숙련 노동자의 94.12%이었다. 화이트 칼라의 경우에도 차이가 커서 서비스직에서 300만 원 이하가 78.98 정도를 차지했고, 사무직 56.31%, 관리직 29.78%, 전문직 46.24%이었다.

<그림 1> 직업에 따른 소득분포



고용상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월 소득은 200만 원 이하로 집중되어 있다. <그림 2>는 비정규직 피고용자의 경우,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비율은 68.82%로 높게 나타나, 비정규직 3명 중 2명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본가와 뿌띠부르주아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대자본가는 서베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6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자가 9.18%로 정규직의 7.33%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고용상의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 분포



가구소득은 가구가 얻는 모든 소득을 합친 소득이다. 가구소득은 일차적으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원 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구소득은 일과 관련하여 얻어지는 근로소득과 일과 무관하게 저축이나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그리고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얻는 이전 소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지만, 미취업자나 퇴직자들에게는 비근로 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이다.

<표1>은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여준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월 101-200만원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지만, 가구소득은 월 401-500만원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어서 개인소득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주된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전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약 56%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미취업 응답자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가구소득은 고소득 계층인 701만 원 이상으로 미취업 가구 3 가구 중 1가구가 고소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이 40-59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득이 높은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2.5%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근로를 하지 않고 고소득을 올리는 주식투자자와 임대료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물 소유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분포

(단위: 명, %)

가구소득 근로소득	-100만원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700	701+	미취업	합계
-100만원	10명 19.23%	7 13.46	9 17.31	7 13.46	8 15.38	6 11.54	1 1.92	4 7.69	0 0.00	52 100.00
101-200		60 22.90	48 18.42	45 17.18	52 19.35	24 9.16	15 5.75	18 6.87	0 0.00	262 100.00
201-300			63 31.19	35 17.33	45 22.28	27 13.37	11 5.45	20 9.90	1 0.50	202 100.00
301-400				90 42.25	57 26.76	38 17.84	14 6.57	14 6.57	0 0.00	213 100.00

401-500					59 48.76	28 23.14	14 11.57	20 16.53	0 0.00	121 100.00
501-600						37 49.33	12 16.00	25 33.33	1 1.33	75 100.00
601-700							18 62.07	11 37.93	0 0.00	29 100.00
701+								34 100.00	0 0.00	34 100.00
미취업	40 11.94	44 9.85	48 14.33	63 18.61	56 16.72	42 12.54	15 4.48	35 33.33	1 1.33	335 100.00
합계	50 3.78	100 7.56	168 12.70	240 18.14	277 20.94	202 15.27	100 7.56	181 13.68	5 0.38	1,423 100.00

2) 주택과 부채의 불평등

(1) 주택

재산은 소득보다 더 확실한 가족생활의 안전판이다. 소득이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척도지만, 재산은 사람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필요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자원이다. 저축이나 부동산 소유와 같은 보유 재산은 가구 수준에서의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Atkinson and Brandolini, 2103: 88-89). 또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생활의 어려움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더 넓다.

재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는 것은 주택이다. 한국인에게 주택은 부동산으로 자산의 유지뿐만 아니라 증식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되는 자산 형태이다. 본 조사에서 한국 중장년의 주택 소유는 63.53%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는 연령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40대 초반의 경우 자가 비율은 58.35%로 나타났고, 50대 후반의 경우는 69.98%로 자가 비율은 11.63%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중장년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저축과 용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택 소유가 가족의 생활 안정을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면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중장년의 비율은 22.99%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40-44세의 경우는 33.78%, 45-49세는 24.59%, 50-54세는 15.70%, 55-59세는 17.25%로 나타났다.

<표 2> 연령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연령	주택 점유 형태				합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40-44	58.35	17.33	9.45	14.87	100.00
45-49	59.76	16.09	14.79	9.35	100.00
50-54	66.65	13.47	10.70	9.18	100.00
55-59	69.98	12.82	8.63	8.57	100.00

(2) 부채

경제적인 자원과 관련한 불평등은 부채와 관련된 불평등이다.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채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부채는 상환 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용이 보장된 사람들일수록 금융권으로부터 대부를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채가 반드시 생활상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현재나 미래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강한 제약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표 3>은 가구소득과 가계부채의 교차표이다. <표 3>에 알 수 있듯이, 2016년 전체 가구의 54.72%가 월 가구소득의 6배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의 절반이 넘는 부채는 상환하기가 쉽지 않은 부채라는 점에서 생활의 곤란함을 야기할 수 있는 부채라고 볼 수 있다. 200만 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경우, 가구소득 6배를 넘는 위험한 부채 비율은 54%로 절반을 넘고 있다. 201-300만원 가구소득의 경우는 72% 정도가 월 가구소득의 6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구소득 수준별로 볼 때 가장 위험 부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가구소득과 가계부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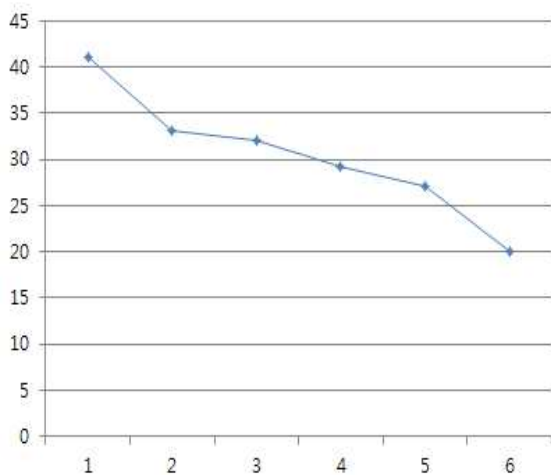
(단위: 명, %)

가구 소득	가계 부채										
	없음	-2,000	2,001-	4,001-	6,001-	8,000-	10,000-	15,000-	20,001+	잘 모름	합계
-100만원	24명 48.00%	9 18.00	5 10.00	3 2/54	1 2.00	0 0.0	2 4.00	1 2.00	1 2.00	0 0/00	50 100.00
	5.91%	4.43	3.07	0.23	1.27	0.00	2.38	1.96	1.23	0.00	3.78
101-200	43 43.00	22 22.00	14 14.00	4 4.00	6 6.00	3 3.00	3 3.00	0 0.00	5 5.00	2 2.00	100 100.00
	10.59	10.84	8.59	3.39	7.59	2.46	2.46	0.00	6.58	9.52	7.56
201-300	43 25.60	32 19.05	31 18.45	19 11.31	11 6.55	10 5.95	10 5.95	6 2.50	2 1.19	4 2.38	168 100.00
	10.59	15.76	19.02	16.10	13.92	11.90	8.20	11.76	2.63	19.05	12.70
301-400	78 32.92	47 19.58	35 14.58	16 6.67	17 7.08	19 7.92	12 5.00	6 2.50	4 1.67	5 2.08	240 100.00
	19.46	23.15	21.47	13.56	21.52	22.62	9.84	11.76	5.26	23.81	20.94

401-500	65	39	42	32	15	19	35	12	17	1	277
	23.47	14.08	15.16	11.55	5.42	6.86	12.64	4.33	6.14	0.36	100.00
	16.01	11.33	25.77	27.12	18.99	22.62	27	23.53	22.37	4.76	15.27
501-600	62	23	14	19	11	20	21	45	18	3	202
	30.69	11.39	6.93	9.41	5.45	9.90	10.40	21.57	8.91	1.49	100.00
	15.27	11.33	8.59	16.10	13.92	23.81	17.21	0.83	23.68	14.29	7.56
601-700	26	12	11	10	10	4	17	4	6	0	100
	26.00	12.00	11.00	10.00	10.00	4.00	17.00	4.00	6.00	0.00	100.00
	6.40	5.91	6.75	8.47	12.66	4.76	13.93	7.84	7.89	0.00	7.56
701+	61	19	11	15	8	9	23	11	23	1.	181
	33.70	10.50	6.08	8.29	4.42	4.97	12.71	6.08	12.71	0.55	100.00
	15.02	9.36	6.75	12.71	10.13	10.71	18.85	21.57	30.26	4.76	13.68
잘 모름	3	0	0	0	0	0	1	0	1	0	5
	60.00	0.00	0.00	0.00	0.00	0.00	20.00	0.00	0.55	0.00	100.00
	0.74	0.00	0.00	0.00	0.00	0.00	0.82	0.00	4.76	0.00	0.38
합계	406	203	165	118	79	84	122	51	76	21	1,323
	30.69	15.34	12.32	8.92	5.97	6.35	9.22	3.85	5.74	1.5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채는 직업이나 연령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단지 혼인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 부채 비율이 51.68%로 가장 낮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부채 비율이 71.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이혼/사별의 경우는 69.35%로 나타나, 결혼 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환 능력뿐만 아니라 부채를 통한 금융자원의 동원이 가족 규모가 큰 경우에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혼 생활이 부채가 동반되는 경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최근 세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림 3> 가구원 수별 부채 없음의 비율 (단위: %, 명)



3) 일자리 안정

중장년 세대는 한편으로 가족생활과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의 장래를 위한 교육 투자로 인하여 소득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정된 일자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표 4>는 연령별 실직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40-44세가 다른 연령 세대보다 가장 실직의 위험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55-59세 가운데 실직의 위험을 느끼는 비율이 31.78%이었고, 50-54세가 34.60%, 45-49세가 36.03%, 40-44세가 38.05%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장년보다 중년에서 실직의 위험이 크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실직에 대한 불안이 40대 초반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5-59세 경우는 이미 퇴직을 준비한 세대이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직과 실직 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의 40-44세 연령대 남성이라고 볼 수 있다. 퇴직 시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직의 위험은 젊은 세대에서 더 크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령별 실직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단위: %)

연령	실직 위험 주관적 평가					합계
	매우 심하게	약간 심하게	보통	별로 없음	전혀 없음	
40-44	7.25	30.80	31.16	25.00	5.80	100.00 (276명)
45-49	8.05	27.97	32.18	21.46	10.34	100.00 (261)
50-54	10.13	24.47	29.96	24.89	10.55	100.00 (237)
55-59	10.28	21.50	25.70	24.77	17.76	100.00 (214)
합계	8.81	26.52	29.96	23.99	10.73	100.00 (988)

4. 미래 기회의 불평등

1) 교육 투자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

경제활동과 소비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한 투자를 한다. 취업과 직업 활동이 교육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래 자녀들의 삶을 잘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혹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교

육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시키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자녀 교육을 통한 미래의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연령대인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비 지출은 미래의 다양한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50대의 경우,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차이로 인하여 교육비 지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 교육비 지출 수준이 기회의 평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비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교육비 지출은 60만 원 이하가 71.62%로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1-6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 교육비가 9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9.14%였으며, 601만 원 이상인 경우는 63.9%로 대단히 높았다.

<표 5>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 교차표

(단위: 만원, %)

교육비 가구소득	-30만원	31-60	61-90	91-120	121+	합계
- 200만원	32.15a 54.00b	39.47	8.37	11.72	8.29	100.00
200-300	24.45 40.86	29.09	16.72	14.75	14.99	100.00
201-400	29.74 34.34	22.73	15.50	13.50	18.53	100.00
401-500	17.86 32.66	20.07	12.08	26.16	23.83	100.00
501-600	13.70 28.63	18.77	8.39	22.27 16.54	36.87 37.96	100.00
601+	11.03 36.76	15.53	9.54	18.26 19.97	45.64 32.51	100.00
합계	17.17 36.54	21.20	11.78	19.41	28.44	100.00
		10.34	4.29	20.43	28.41	100.00

참고) a는 40대의 응답 비율이며, b는 50대의 응답 비율이다.

<표 6>는 연령을 더 세분하여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 Chi-square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연령대는 45-49세로 자녀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50대 전반기에도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40대 초반보다 더 많은 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9세의 경우, 피어슨 콰이 제곱 값은 51.2121로 40대 초반의 경우 32.9049보다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와의 연관성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가구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 교육비 지출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심해지다가, 50대 초반에 들어서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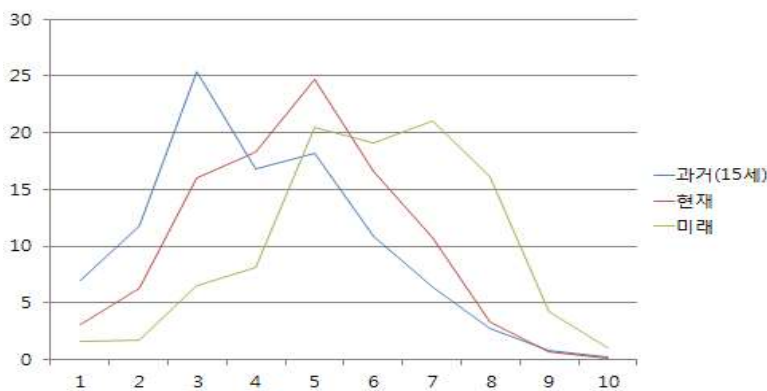
<표 6> 연령 세대별 가구소득과 자녀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

연령	Pearson Chi-square	유의수준
40-44	32.9049	.035*
45-49	51.2121	.000***
50-54	45.0217	.001**
55-59	26.9853	.136

2) 계층이동: 과거와 미래

한국의 중장년은 과거와 미래의 계층구조와 계층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거, 현재와 미래의 계층 구조는 10분위 소득계층에서 부모 세대, 본인 세대와 자녀 세대의 10분위 소득계층 내의 위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는 세대 간 소득 계층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4>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 순으로 소득계층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여 과거 소득분위가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세대 간 소득 계층의 분포 (단위: %, 소득분위)



그렇다면, 소득계층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계층이동의 계층별 차이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기회의 불평등의 추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들이다. 소득계층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소득계층 출신보다 상승하는 정도가 적거나 힘들다면, 소득계층 간 격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세대 간 계층이동의 경험과 미래 세대 간 계층이동의 희망은 한국 사회를 움직여 온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가족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한편으로 유일한 상승이동의 기회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현실적인 조건과 다른 한편으로 확대되는 교육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이해가 맞물리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여주었다.

<표 7>와 <표 8>는 응답자 부모 세대에서 응답자 세대에 걸친 주관적인 계층이동 교차표이다. 여기에서 주관적인 계층은 주관적으로 부모의 계층과 본인의 계층을 최하층 1에서 최상층 10까지의 계층 서열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계층이다. 여기에서 1부터 10까지의 계층 서열을 1~3은 하층, 4~7은 중층, 8~10은 상층으로 다시 3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횡과 열의 주변분포는 부모의 세대에 비해서 본인 세대에 중간 소득층이 크게 늘었다. 부모 세대의 경우, 중간소득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52.08%이었지만, 본인 세대의 경우, 중간 소득층 비율은 70.45%였다.

<표 7> 부모-본인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본인의 계층 부모의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217명 (37.09%, 64.39%)	352 (60.17, 37.77)	16 (2.74, 29.63)	585 (100.00, 44.22)
중	105 (15.24, 31.16)	552 (80.12, 59.23)	32 (4.64, 59.26)	689 (100.00, 52.08)
상	15 (30.61, 4.45)	28 (57.14, 3.00)	6 (12.24, 11.11)	49 (100.00, 3.70)
합계	337 (25.47, 100.00)	932 (70.45, 100.00)	54 (4.08, 100.00)	1,323 (100.00, 100.00)

참고) 좌측 괄호안의 수치는 횡의 퍼센트를 지칭하며, 우측 괄호안의 수치는 열의 퍼센트를 지칭한다

<표 8> 본인-자녀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전망

자녀의 계층 본인의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100명 (29.67% 77.52%)	206 (61.13, 22.64)	31 (9.20, 0.92)	337 (100.00, 10.92)
중	27 (2.90, 20.93)	689 (73.93, 75.71)	216 (23.18, 76.06)	932 (100.00, 70.45)
상	2 (3.70, 1.55)	15 (27.78, 1.65)	37 (68.51, 13.03)	54 (100.00, 4.08)
합계	129 (9.75, 100.00)	910 (68.78, 100.00)	284 (21.47, 100.00)	1,323 (100.00, 100.00)

참고) 좌측 괄호안의 수치는 횡의 퍼센트를 지칭하며, 우측 괄호안의 수치는 열의 퍼센트를 지칭한다

<표 9>은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를 고려한 후, 3세대에 걸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출신 계층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승산비(odds ratio)²⁾이다. 첫 번째 열은 부모와 본인의 계층 이동의 승산비를 보여준다. 첫 번째 항은

2) 승산비(odds ratio)는 두 가지의 승산(odds)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층, 중층과 하층의 숫자를 남자의 경우, 각각 A(남), B(남), C(남)라고 하고, 여성의 경우, 각각 A(여), B(여), C(여)라고 하면, 남성이 중층 대신에 상층이 될 승산은 A(남)/B(남)이 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동일하게 A

하층 부모의 자녀가 중층 대신에 하층이 되는 승산이 중산층 부모의 자녀가 중층 대신에 하층이 될 승산과 비율이다. 부모의 계층과 무관하게 비교가 되는 계층에 속할 승산에서 차이가, 각 항의 수치는 1이 될 것이다. 1에서 멀어질수록 부모에 계층에 따른 본인의 계층 승산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층 부모를 둔 중장년 세대가 중층 대신 하층이 될 승산은 중층 부모를 둔 중장년 세대보다 3.240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층보다 하층이 될 승산은 4.133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장년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부모 계층에 따라서 자신들의 계층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층이나 상층보다 더 안정적인 계층은 중층으로 중층은 하층과 비교해서도 또한 상층과 비교해서도 중층이 될 승산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중층 부모를 둔 중장년 가운데 중층보다 하층이 된 경우는 상층 부모를 둔 중장년 가운데 중층보다 하층이 될 승산의 1/3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중층을 소득분위 30%와 소득분위 70% 사이의 40%로 정의한 것에 따른 통계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소득을 중심으로 중층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중층 조작화(operationalization)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계층이동의 출신 계층 간 차이는 미래 세대에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9>의 두 번째 열은 본인과 자녀 세대 간 기대되는 미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이다.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승산비 비교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이동의 과거와 미래의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 미래 계층이동이 훨씬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열의 승산비가 첫 번째 열의 승산비에 비해서 1에 더 가까워 질 것이다. 반면에, 계층이동이 더 어려워진다고 인식한다면, 두 번째 열의 승산비가 첫 번째 열보다 1에서 더 크게 멀어질 것이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 열의 승산비는 첫 번째 열의 승산비에 비해서 3배~11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래의 계층이동이 과거의 계층이동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하층 부모의 자녀들이 상층 대신에 하층이 될 승산은 상층 부모의 자녀들이 상층 대신 하층이 될 승산의 11배에 달하여 하층과 상층 간의 계층이동의 격차가 극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층에서 계층을 유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하층과 중층 그리고 중층과 상층의 격차도 커져서 계층 간 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적으로 요즈음 등장한 흑수적-금수저” 담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여성)/B(여성)가 된다. 남성의 승산과 여성의 승산을 비교하면, 승산비가 된다. 이는 여성 승산비를 남성 승산비로 나눈 것으로 승산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중층보다 상층이 될 남녀 승산의 비(odds ratio)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frac{\text{여성 승산}}{\text{남성 승산}} = \frac{A(\text{여})/B(\text{여})}{A(\text{남})/B(\text{남})}$. 만약 이 값이 1이면, 여성의 승산과 남성의 승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1보다 작으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가 중층 대신에 상층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그 값이 1보다 크면, 중층 대신에 상층이 될 승산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에서 벗어날수록 비교하는 대상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표 9> 3 세대 간 주관적 계층이동 승산비

		부모- 본인(1세대-2세대)	본인-자녀(2세대-3세대)
하층 대 중층	하층 대 중층	3.2409	12.3876
하층 대 중층	중층 대 상층	1.2753	2.0832
하층 대 중층	하층 대 상층	4.1333	25.8065
중층 대 상층	하층 대 중층	0.3551	0.2939
중층 대 상층	중층 대 상층	3.6964	7.8682
중층 대 상층	하층 대 상층	1.3125	0.4324
하층 대 상층	하층 대 중층	1.1506	3.6408
하층 대 상층	중층 대 상층	4.7143	16.3914
하층 대 상층	하층 대 상층	5.4250	59.6800

3) 지역 간 계층이동 격차

과거 사회계층 이동에 대한 경험과 미래 사회계층 이동에 대한 전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차이는 응답자의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와 본인 간의 계층이동과 본인과 자녀 간의 계층이동을 광역시와 비광역시(중소도시 및 농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과거 부모 세대와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에서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향후 미래에는 비광역시보다 광역시에서의 계층이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광역시 거주 중장년 세대의 경우, 부모의 계층과 본인의 계층 간에 연관성이 높지만, 계층이동이 많이 이루어졌다. <표 10>에서 피어슨 콰이제곱으로 측정되는 부모 계층과 본인 계층의 연관성 정도는 광역시 거주자들의 경우(40.0530)가 중소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의 경우(52.6936)보다 더 낮았다. 이것은 부모세대와 본인세대 계층이동에서 농촌보다 도시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향후 본인과 자녀 간의 계층이동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관성이 크게 증가하여 광역시 거주자들의 경우 피어슨 콰이제곱이 157.0640으로 4배 정도 더 커졌고, 중소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의 경우도 130.2676으로 높아졌지만, 이 경우에는 광역도시 거주자보다는 세대 간 계급의 연관성이 낮았다. 이것은 과거 대도시가 계층이동의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하였지만, 중소도시보다 계층 고착화 정도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부모-본인 계층이동 (광역시)

본인 계층 부모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98명 (39.20% 61.25%)	144 (57.60, 35.47)	8 (3.20 25.81)	250 (100.00 41.88)
중	56 (17.45 35.00)	246 (76.64 60.59)	19 (5.92 61.29)	321 (100.00 53.77)
상	6 (23.08 8,75)	16 (61.54 3.94)	4 (15.36 4.36)	26 (100.00 4.36)
합계	160 (26.80 100.00)	406 (68.01 100.00)	31 (5.19 100.00)	597 (100.00 100.00)

Pearson chi2(4) = 40.0530 Pr = 0.000

<표 11> 본인-자녀 계층이동(광역시)

자녀 계층 본인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49 (30.63 76.56)	99 (61.88 25.00)	12 (7.50 8.76)	160 (100.00 26.80)
중	14 (3.45 21.88)	292 (71.92 73.74)	100 (24.63 72.99_)	406 (100.00 68.01)
상	1 (3.23 1.56)	5 (16.13 1.26)	25 (80.65 18.25)	31 (100.00 5.19)
합계	64 (10.72 100.00)	396 (66.33 100.00)	137 (22.95 100.00)	597 (100.00 100.00)

Pearson chi2(4) = 157.0640 Pr = 0.000

<표 12> 부모-본인 계층이동(비광역시)

본인 계급 부모 계급	하	중	상	합계
하	119 (35.52 67.23)	206 (62.09 39.54)	13 (2.99 34.78)	335 (100.00 46.14)
중	49 (13.92 27.68)	308 (83.15 58.17)	13 (3.53 56.52)	368 (100.00 50.69)
상	9 (39.13 5.08)	12 (52.17 2.28)	23 (8.70 8.70)	23 (100.00 3.17)
합계	177 (24.38 100.00)	526 (72.45 100.00)	23 (3.17 100.00)	726 (100.00 100.00)

Pearson chi2(4) = 52.6936 Pr = 0.000

<표 13> 본인-자녀 계층이동 (비광역시)

자녀 계층 본인 계층	하	중	상	합계
하	51 (28.81 78.46)	107 (60.45 20.82)	19 (10.73 12.93)	177 (100.00 24.38)
중	13 (2.47 20.00)	397 (75.48 77.24)	116 (22.05 78.91)	526 (100.00 72.45)
상	1 (4.35 1.54)	10 (43.48 1.95)	12 (52.17 8.16)	23 (100.00 3.17)
합계	65 (8.95 100.00)	514 (70.80 100.00)	147 (20.25 100.00)	726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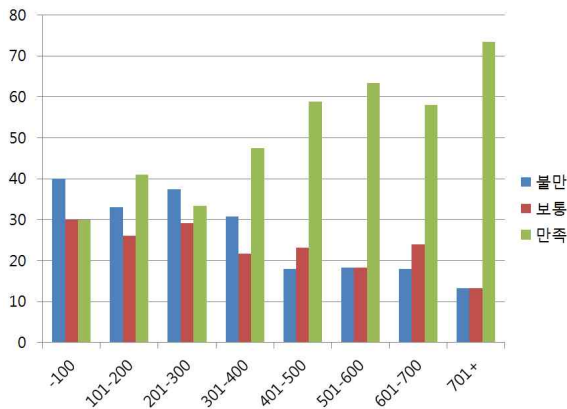
Pearson $\chi^2(4) = 130.2676$ Pr = 0.000

4) 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원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가족관계의 질이나 정치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원의 불평등이나 기회의 불평등과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기회의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5>는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두드러진 점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월소득 100원 미만 중장년에서 생활에 대한 불만 비율이 4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70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서 생활에 대한 불만 비율은 13.26%로 매우 낮았다. 또한 만족도의 경우도, 최저 소득계층인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생활 만족도는 33.33%로 701만 원 고소득 계층의 73.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이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 (단위: %, 만원)



그렇다면,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14>은 “나는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공정한 대우 평가와 삶의 만족도의 교차표를 분석한 것이다.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0.77%이었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30.16%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기회불평등이 삶의 만족도와 얼마나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표 14>은 대단히 체계적으로 공정한 대우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비율이 79.17%에 달하였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생활 불만족 비율은 26.42%에 불과하였다.

<표 14> 공정한 대우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교차표

(단위: %, 명)

공정한 대우	삶의 만족도			합계
	불만족	보통	만족	
(1) 매우 그렇다	6.25%	14.58%	79.17%	100.00 (43명)
(2) 그렇다	15.33	15.71	68.97	100.00 (261)
(3) 보통이다	20.73	27.82	51.44	100.00 (381)
(4) 별로 그렇지 않다	37.14	18.37	44.49	100.00 (245)
(5) 전혀 그렇지 않다	47.17	26.42	26.42	100.00 (53)
합계	24.09 (238명)	21.56 (213)	54.35 (547)	100.00 (988)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 공정한 대우와 삶의 만족도는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성공했다고 자신이나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삶의 만족도도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주어지는 경우,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대우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보고서는 한국 중장년 세대의 기회 불평등을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애과정에서 중장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본인의 경제활동, 미래 자신의 노후 준비와 미래 세대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러한 세 가지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의 중장년은 어느 세대보다 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 불평등은 주로 직업과 고용상의(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가구소득은 부부의 경제활동 방식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늘어나면서, 개인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 불평등은 연령 세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비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공공주택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주택은 거주공간이자 투자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인식 때문에 중장년 세대 내에서 자가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주택 구매나 임차할 때, 부모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게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집을 구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불평등 체제 내에서 이동할 수 있기 기회가 확산되고 또 사회이동으로 현실화된다면, 불평등 체제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기회 불평등이 보장된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현재의 계층에 따라서 매우 다르며, 과거보다 미래에서 계층이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세대 계층이동은 본인과 미래 자녀들의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계층이동을 계층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부모-본인 간의 계층이동보다 본인-자녀 세대의 계층이동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불평등의 결과는 삶의 만족도 불평등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났다.

참고문헌

- 신광영. 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유경준. 2012.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통권 15호, 1-8.
- Arneson, Richard. 1989.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Studies* 56, pp. 77-93.
- _____, 1999, “Egalitarianism and Responsibility” , *Journal of Ethics* 3: 225-247
- Atkinson Anthony B. and Francois Bourguignon. 2015.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Amsterdam: North-Holland.
- Cohen, G. A. 1989.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906-944.
- Fishkin, Joseph. 2014.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유강은 역,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문예출판사).
- Marx, Karl. 2015[1867].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 London: Penguin Books.
- OECD, 2016.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Paris: OECD.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Justice As Fairness*, ed. by Erin Kelly,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ohn.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ohn and Alain Trannoy. 2015. "Equality of Opportunity"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A ed. by Anthony B. Atkinson and Francois Bourguignon, Amsterdam: North-Holland, pp. 217-300.
- Weber, Max. 1978[1922]. *Economy and Society I*, 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요약문	1
1. 서론	2
2. 행복의 구성요소와 행복 기회불평등	3
3. 조사 설계와 응답자 특성	5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및 표본의 기술 통계	
4.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	9
1) 노년층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 세대별/연령별 비교	
2) 노년층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교차분석)	
5. 노년층의 행복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15
6. 결론	21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 노년층(2016년 3월 현재 만 60세에서 74세 인구)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에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의 3,520명의 설문조사 결과 중 60세에서 74세 노령인구 533명의 설문응답이다. 조사 방법은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115건은 1:1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소득같은 경제변수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인정감이나 문화체험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변수는 아직 우리나라 노년층들에게는 ‘사치’인 것이다. 후술할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과 더불어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층의 소득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적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못 받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액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사적연금의 가입이나 급여액도 전 소득계층에서 그리 높지 못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어도, 낮은 급여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약한 공적연금제도는 노년층의 삶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노년층은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이 높은 세대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직업이나 과거 어릴 때 자신의 집안이 속한 사회계층이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과 비교적 뚜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의 중요성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학력이 평준화 될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족배경의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1차 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의 강화가 필요하다.

1. 서론

박근혜 정부의 캐치워드는 행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선거캠프 이름을 ‘국민행복캠프’로 명명하였으며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국민행복기금, 행복주택,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 집권 후 주요 정책에 ‘행복’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국민들이 웰빙과 행복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이다. 언론의 행복에 대한 보도도 그리고 학자들의 행복연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국민도 모두 행복해지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 조사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규모는 세계 11위, 수출은 세계 6위, 1인당 GDP도 28위로 분명 경제선진국이다. 그런데 2016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58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은 행복불평등도가 높다. 한국 응답자의 표준편차는 2.1555로,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96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회원국 평균 1.868보다 훨씬 크며 OECD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행복불평등도가 높다 (Hillivell, Huang and Wang, 2016). 소득불평등이 낮은 게 바람직한 것처럼, 행복감도 격차가 크기 보다는 골고루 비슷하게 행복한 게 바람직하다. 상대적 박탈감이 주는 불행감이 매우 큰데, 소득 뿐만 아니라 행복감에서도 격차가 크다면 그 자체로 불행해 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할까? 50%에 육박하는 높은 빈곤율과 OECD평균의 10배가 넘는 자살율을 감안하면, 이들의 행복감이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높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분석’에 따르면 노인가구가 될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빈곤진입률이 18.2%에 이른다. 40~59살 가구주의 7.2%에 비해 훨씬 높다. 은퇴이후에도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에서 벗어나는 ‘유효 은퇴 연령’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71.5살, 70.1살에 이른다. 올해 초 한국일보가 기획한 ‘저성장 시대, 한국 리포트 4개국 행복도 조사’¹⁾에서도 60세 이상 연령층의 행복도는 3개국(일본·브라질·덴마크)에서는 증가한 반면, 유독 한국만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오세인, 2016).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1만451명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노년층의 행복 수준을 우리나라의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행복감은 U자 커브를 그린다고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서서히 떨어지다가 50대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고 은퇴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건강히 크게 나빠지는 70~80세까지 상승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도 그럴까?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불평등도가 높다고 했는데, 노년층의 행복불평등도는 어떨까? ‘인생은 60부터’라지만, 소득, 건강 등 노년층이 맞이하게 되는 조건이 크게 달라지기에 누구나가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복의 격차와 원인은 무엇일까?

1) 2015년 12월 실시. 한국의 성인 1천면 전화면접조사 및 나머지 3개국 각 패널 500명 온라인 조사의 결과임.

본 연구는 한국 노령층(2016년 3월 현재 만 60세에서 74세 인구)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만을 대상으로한 국제비교는 자료의 한계 상 다루지 않는다. 대신 첫째, 우리나라 노령층이 느끼는 행복을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과연 한국에서도 U자 커브는 유효할 것인가? 둘째, 노인들 사이의 행복불평등은 어떠한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행복할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노령층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소득수준별, 학력별, 출신지역 및 집안배경 등에 따라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4월 5일에 전국 만 16세 이상 만 74세 남녀 3,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결과 중, 만 60세~74세 노령인구 533명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다음 절에서는 행복감의 구성요소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노년층의 특징을 다룬다. 둘째, 조사설계와 응답자 특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노년층의 행복에 대한 실태를 세대별로 비교한다. 셋째,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노년층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 낸다. 넷째, 행복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요인들이 남녀, 학력, 소득, 지역, 직업 등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밝힌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2. 행복의 구성요소와 행복 기회불평등

행복감 혹은 삶에 대한 만족은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그리고 410쌍의 일관성/이관성 쌍둥이를 비교 연구한 Lykken(1999)의 선구적인 연구에 의하면 유전적 영향이 행복 변량의 40~50%를 설명한다. 그렇다고 유전적/심리적 요인 외에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교육, 건강), 경제적(소득, 일), 그리고 사회관계망(결혼, 사회적 자본)의 세가지 차원에서 구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이는 OECD국가같이 소득이 높고 남녀간의 차별이 크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의 행복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여성의 행복도가 남성보다 낮다. 둘째,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는 U자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사람들은 어린 청소년기에 높은 행복감을 보이다가 이후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50대에 다시 반등하여 70대까지 행복감이 올라간다.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70대 중반이나 80대 이후 삶의 만족도가

2)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별다른 추가적인 인용이 없는 경우 대부분 Layard, Clark and Senik (2012)에 크게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다시 하락하지만, 대부분의 인생기에는 U자를 그리는 것이다. 50대 이후 다시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관조 그리고 젊었을 때 가졌던 높은 기대와 열망 수준이 낮아져 기대와 성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 가는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증가된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에서는 교육 수준 자체가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국민대중의 교육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곧바로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단지, 교육수준이 괜찮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 소득과 승진 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넷째, 건강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그리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객관적인 건강상태 모두 행복감과 유의미한 관련을 갖는다. 그리고 역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건강함이 행복감을 다시 높여주는 선순환을 그리기도 한다 (Diener and Chan, 2011).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소득(income)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국민에 비해 행복도가 높다. 개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 상승으로 인해 상향적 사회이동 경험을 하면 그만큼 행복도는 올라간다. 그러나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행복감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않는다. 소득의 영향력은 소득 증가와 함께 줄어들거나 사라지기까지 한다. 마슬로우(Maslow, 1943)의 욕구단계론이 지적하듯이,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가족/사회관계, 자아실현 등 비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둘째, 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도가 높다. 실업은 행복감을 크게 떨어뜨린다. 근로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방편만이 아니고, 일 그 자체가 자아실현의 수단이고 일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한다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만족할 만한 괜찮은 일(decent job)일 때 행복과 직결된다. 일을 통해 적정 소득이 발생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유연하고, 승진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며 일 자체가 흥미롭고 사회에 이롭다고 느낄 때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

사회관계망 요인을 보면, 첫째 결혼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 그리고 동거 보다 법정혼을 통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행복감이 더 높다. 둘째, 사회적 자본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가족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았을 때 행복감이 올라간다.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와 사교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문화체험, 함께하는 운동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

노년층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선진국에서는 노년기 소득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공적연금의 가입 유무와 연금액수가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Holden and Hatcher, 2006; Grinfelde and Mistre, 2008). 고령화와 함께 은퇴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근로가 늘고 있다. 예컨대, 55세에서 65세 독일 남성의 고용률은 2005년 53.6%에서 2015년 71.3%로, 스웨

덴의 경우 2001년 69.4%에서 76.8%로, 영국도 2000년 60.1%에서 68.7%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여부와 일자리의 질이 노년층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층일수록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과 배우자의 사망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앞서 논한 행복 요인들은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노년층일수록 강하다. 노년층의 소득/자산 불평등, 건강불평등, 근로활동 유무, 배우자 유무, 사회활동 등에서 집단 내 격차는 근로연령대 인구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instock and George, 2006; 손병돈, 2009; Hasegawa, 2001; 강혜원.조영태, 2007; 이원진, 2013; 김영선, 2012). 예를 들어, 한국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529로 전체 가구 대상 지니계수 0.417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병인.전승훈, 2005). 한마디로 근로연령대 인구집단 보다 노년층에서 행복의 기회불평등이 큰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3. 조사 설계와 응답자 특성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에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는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조사는 성별·연령·지역을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 만 16세에서 74세 남·여 3,520명의 조사결과가 수집됐다. 이 중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60세에서 74세 노령인구는 534명이다. 조사 방법은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115건은 1:1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이자 종속변수인 행복은 설문조사 문항 중 ‘삶의 만족도’이다. 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0점(최저)부터 10점(최고)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토한 변수는 최종학력, 가계월 평균소득, 공적연금소득, 종사직업 및 근로여부, 출신지역, 과거 소속계층인식 (응답자의 15세 시기), 현재 소속계층인식, 만성질환개수, 결혼여부, 자녀 및 친구 관계, 문화생활 등이다.

회귀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변수를 조사의 원데이터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교차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조작화한 변수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가계평균월소득의 경우 19개의 응답항목이 있었는데, 이를 응답자 수의 분포를 감안해 상층(401만원이

상, 30.7%), 중간층(201만원-400만원, 37.5%), 하층(200만원이하, 31.3%)로 재구성했다. 또한, ‘계층이동분류’와 ‘공적연금액’와 같이 조작화를 통해 새롭게 생성한 변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층이동분류의 경우 현재계층인식의 값에서 과거계층인식의 값을 뺀 값이며, 공적연금액의 경우 국민연금액과 공무원연금액을 합한 변수이다. 이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1을 참조하면 된다.

분석에서 사용한 행복불평등은 2016년 UN 세계행복보고서(HIlive11, Huang and Wang, 2016)에서 사용한 방법을 차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개별 응답자들 사이에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여기서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표준편차 (개별 응답치들이 전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준편차가 클수록 행복불평등이 높은 거로 해석한다.

2) 응답자 특성 및 표본의 기술 통계

조사 중 본 연구의 대상인 노년층 응답자는 만 60세 이상 74세까지로 1942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한 자들이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가정하면 1962년부터 1976년 사이에 소득활동을 시작하였고, 남자로서 군대를 갔다 온 것을 가정하면 3년 후인 1965년부터 1979년 사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산업화 세대다. 이들이 60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하면 은퇴 시기는 2002년부터 2016년 사이가 된다. 전체 노년층 응답자 533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8%로 280명이다. 연령은 60-64세가 전체의 58.1%를 차지한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56.2%로 다수를 차지하며, 거주 지역 중에서는 광역시가 25.8%, 출신지역 중에서는 경상도가 33.7%로 가장 많다. 가계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가족간 이전 등 포함)의 경우에는 201만원에서 400만원까지가 37.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이 각각 114명으로 동일하게 제일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농림어업 종사자가 18명으로 가장 적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62.2%)가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농림어업(4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년층 응답자의 80%가량이 배우자가 있었으며, 주거의 형태는 대다수가 자가(73%)였다. 응답한 노인들은 대개 1개 가량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77%가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배우자·자녀 만남이나 친구만남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은 전혀하지 않는(45%) 비율이 높았다. 노후 대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률은 50%, 군인·공무원 연금의 가입률은 15.7%, 사적연금의 가입률을 21%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자신의 소속계층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과거소속계층인식의 경우 하층(43%)과 중간층(51%)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상층(6%)은 거의 없었다. 현재의 경우에는 하층(27%)이 상당히 감소하고 중간층(65%)이 두터워졌으며 상층(6.5%)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계층이동의 경험은 상향경험(48%)이 가장 많았으나, 하향(24.5%)을 경험한 노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행복의 지표로 살고 있는 삶의 만족도의 경우 86% 이상의 인원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38.4%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답했다. 본론에서 교차분석 시 T-test와 아노바를 통해 집단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고, 영향 요인과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주요 응답자 특성

전체		빈도(수)	퍼센트(%)
		534	100
성별	남자	254	47.6
	여자	280	52.4
연령	60-64세	310	58.1
	65-69세	169	31.6
	70-74세	55	10.3
거주지역	서울	107	20
	경기	108	20.2
	광역시	138	25.8
	경상도	68	12.7
	전라도	49	9.2
	충청도	39	7.3
	강원 제주	25	4.7
출신지역	서울	88	16.5
	경기인천	46	8.6
	경상도	180	33.7
	전라도	108	20.2
	충청 강원제주	108	20.2
가구소득	저소득층	261	30.7
	중소득층	175	37.5
	고소득층	95	31.3
최종학력	중졸이하	93	17.4
	고졸	300	56.2
	대졸	141	26.4
종사직업	관리/전문직	114	21.3
	사무직	114	21.3
	판매직	106	19.9
	농림어업	18	3.4
	숙련/반숙련	75	14
	단순직	26	4.9
	군인/공무원	50	9.4
	무직	31	5.8
주거점유형태	자가	394	73.8
	전세	62	11.6
	보증부월세	32	6.0
	월세	24	4.5
	부모님명의및기타	22	4.1
만성질환수	전혀없음	110	20.6
	1-2개	276	51.7
	3-4개	118	22.1
	5개 이상	30	5.6
현재소속계층	하층	149	27.9
	중간층	350	65.5
	상층	35	6.6

4.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

1) 노년층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 세대별/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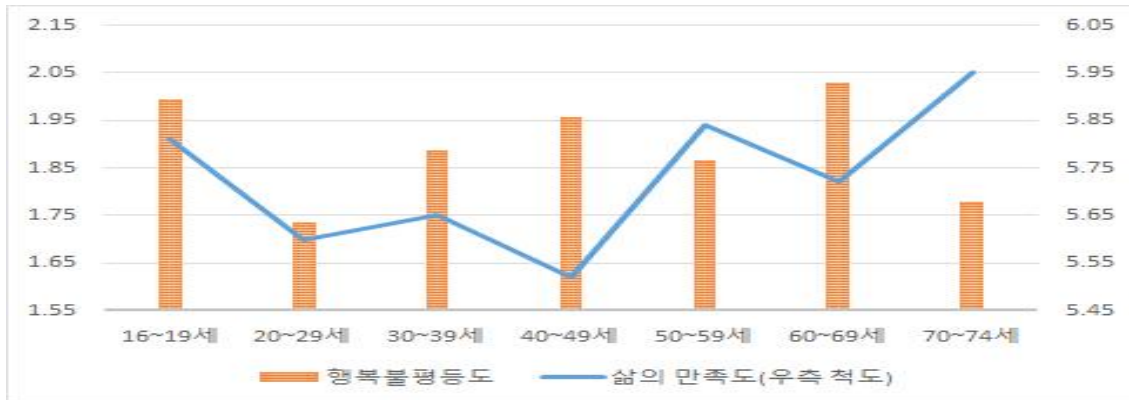
만 16 세부터 만 74 세까지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11 점 척도(0 은 매우만족하지 않는다, 5 중간, 10 매우 만족한다)에서 평균 5.69로 다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소년(16~19 세)의 만족도 평균이 5.81로 가장 높고, 청년(20~39 세)과 중장년(40~59 세)은 각각 5.63 과 5.67 로 전체 평균을 하회한다. 노년층(60~74 세)의 경우 5.74로 청소년 다음으로 높은 삶의 만족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대별 삶의 만족도는 노년층에서 가장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행복불평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 세대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

세대별 (연령)	삶의 만족도 (평균)	응답자수	행복불평등도 (표준편차)
청소년 (16~19)	5.81	541	1.995
청년 (20~39)	5.63	1122	1.816
중장년 (40~59)	5.67	1323	1.920
노년 (60~74)	5.74	534	2.006
전체 (16~74)	5.69	3520	1.913

세대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10년 단위 연령별 추이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아래 <그림 1>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행복도는 청소년기와 노년기에 높은 U자를 그리고 있고 행복불평등도 또한 청소년기와 노년기(60~69 세)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설문대상자에서 75 세 이상을 제외하였는데, 만약 이들이 포함되었다면 행복도 추세선은 70 대 중후반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 노년층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 (10년 단위 연령대별 추이)



2) 노년층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교차분석

노년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0부터 10점까지 11점 리커드 척도이며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귀하께서는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0부터 3점까지는 ‘만족도 낮음,’ 4점부터 6점까지는 ‘만족도 중간,’ 7점부터 10점까지는 ‘만족도 높음’ 으로 재분류하고 독립변수별 교차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대부분 이론에서 예측하는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행복도가 높고, 가계소득과 학력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공적연금인 연금액수가 200만원 이상인 최 상단과 아예 연금수입이 전혀 없는 최 하단의 경우 행복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집단에서는 의미있는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만성질환수로 나타난 건강상태를 보면 건강할수록 행복도가 높고, 친구와의 만남과 문화예술 관람 등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체로 사회관계가 활발하지 않은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속한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다고 여길수록 행복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15세 때 자신이 속했던 사회계층보다 현재 소속계층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 즉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다고 여기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3> 노년기 행복과 영향요인별 비교

영향요인 (사례수)		만족도 낮음	만족도 중간	만족도 높음	p값
성별	남자 (254)	18.50%	53.90%	27.60%	0.000(T)
	여자 (280)	9.30%	42.50%	48.20%	
연령대별	60-64세 (310)	14.20%	42.60%	43.20%	0.157
	65-69세 (169)	14.20%	55.00%	30.80%	
	70-74세 (55)	9.10%	56.40%	34.50%	
최종학력	중졸이하 (93)	15.10%	48.40%	36.60%	0.001
	고졸 (300)	14.70%	53.70%	31.70%	
	대졸 (141)	10.60%	35.50%	53.90%	
가계소득	고소득층 (95)	4.2%	43.1%	52.7%	0.000
	중소득층 (175)	11.5%	51.0%	37.5%	
	저소득층 (261)	25.6%	48.8%	25.6%	
공적연금	없음 (183)	21.30%	42.60%	36.10%	0.059
	1-49만원 (136)	14.70%	49.30%	36.00%	
	50-99만원 (83)	7.20%	54.20%	38.60%	
	100-149만원 (46)	6.50%	52.20%	41.30%	
	150-199만원 (9)	0.00%	77.80%	22.20%	
	200만원이상 (75)	6.70%	45.30%	48.00%	
근로여부	근로 (261)	14.30%	48.40%	37.40%	0.568(T)
	근로안함 (267)	13.00%	47.50%	39.50%	
현재소속계층	하층 (149)	36.90%	47.00%	16.10%	0.000
	중간층 (350)	5.10%	51.10%	43.70%	
	상층 (35)	0.00%	20.00%	80.00%	
사회적 상향이동경험	상향이동경험없음 (277)	21.30%	49.50%	29.20%	0.000(T)
	상향이동경험있음 (257)	5.40%	46.30%	48.20%	
만성질환수	전혀없음 (110)	12.70%	36.40%	50.90%	0.032
	1-2개 (276)	12.00%	50.70%	37.30%	
	3-4개 (118)	15.30%	54.20%	30.50%	
	5개 이상 (30)	26.70%	40.00%	33.30%	
배우자	배우자있음 (430)	12.80%	48.40%	38.80%	0.358(T)
	배우자없음 (104)	17.30%	46.20%	36.50%	
친구 만남	전혀하지않는다 (7)	14.30%	42.90%	42.90%	0.000
	한달에한두번 (167)	23.40%	46.10%	30.50%	
	한달에서너번 (206)	6.80%	48.10%	45.10%	
	일주일에 네다섯번 (154)	12.30%	50.00%	37.70%	
문화예술활동	전혀안함 (227)	22.50%	47.60%	30.00%	0.000
	분기별1회이상 (191)	7.30%	48.20%	44.50%	
	한달에 2회 이상 (91)	7.70%	44.00%	48.40%	
	일주일에 2회 이상 (25)	4.00%	64.00%	32.00%	

노령층 내 3개 연령대 그룹은 삶의 만족도 관련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통계치는 나오나, 나이에 따라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근로여부에 따른 집단 간 행복감의 차이도 어떤 의미있는 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통계학적으로도 그러하다. 앞서 이론에서 지적하였듯이, 근로가 행복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소득과 안정감 등이 함께하는 괜찮은 일자리여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어 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년기 생계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괜찮지 않은’ 일자리로라도 근로를 해야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 여부는 이론과 달리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남자와 여자 그룹별로 배우자의 존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교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4>의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있을 때 삶의 만족이 높아지나, 여자의 경우 높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을 때 불행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4> 배우자 생존 여부와 삶의 만족도 세부 교차분석

		삶의 만족도			P값 (T-test)
		낮음	중간	높음	
전체	배우자 있음	12.8%	48.4%	38.8%	0.358
	배우자 없음	17.3%	46.2%	36.5%	
남자	배우자 있음	16.3%	55.9%	27.8%	0.100
	배우자 없음	37.0%	37.0%	25.9%	
여자	배우자 있음	8.9%	39.9%	51.2%	0.152
	배우자 없음	10.4%	49.4%	40.3%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 요인을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영향 요인 전체)

모형1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47	1.352		2.698	.007
성별(남성)	-.588	.159	-.147	-3.707	.000
연령	-.005	.020	-.010	-.268	.789
학력	-.288	.173	-.063	-1.664	.097
가계소득	.052	.019	.116	2.729	.007
공적연금액	.001	.001	.031	.773	.440
근로여부	-.036	.153	-.009	-.239	.811
현재소속계층	.522	.049	.473	10.604	.000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	.334	.156	.083	2.143	.033
만성질환개수	-.155	.047	-.117	-3.277	.001
배우자유무	-.280	.186	-.055	-1.503	.133
친구만남	.055	.044	.044	1.234	.218
문화예술활동	.049	.039	.046	1.264	.207

앞서 교차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삶의 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며, 건강하고 현재 소속계층이 높으며 상향이동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만족도가 높았다. 가장 행복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 자신이 속해 있다고 여기는 소속계층이었다. 자신이 상층에 속해 있다고 여길수록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컸다. 다음은 성별, 건강, 가계소득,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 순이다. 그러나, 노령층 내 연령, 학력, 근로여부, 공적연금수령액, 배우자 유무, 친구와의 만남, 문화예술활동 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연령의 경우, 본 조사가 만 60세부터 74세 노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70대 중반 이후 노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건강 쇠퇴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진국 행복연구의 결과와 달리 친구와의 만남이나 문화예술활동 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등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기에 사회관계망 변수의 중요도가 커지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단계가 못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적연금이 삶의 만족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수령자 비율이 높지 못하고 금액도 얼마 안되어, 삶의 만족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수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6>의 경제적 요인으로만 구성된 회귀 모델 2에서도 공적연금의 수급액은 현재 노년기 삶의 만족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근로와 삶의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 근로와 행복의 관계가 부의 관계라는 것이다. 노년에 생계를 위해 ‘괜찮지 않은’ 일이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고단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모형 2: 경제적 요인)

모형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897	.158		30.953	.000
가계소득	.147	.020	.328	7.417	.000
공적연금액	.001	.001	.065	1.511	.131
근로여부	-.356	.168	-.089	-2.113	.035

주관적 소속계층인식, 소득, 건강 등 영향력이 강한 변수와 함께 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던 사회관계망 변수도 모형 3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며 (R=.269),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교차 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배우자 없는 남성은 삶의 만족이 떨어지는 것을 회귀분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7> 회귀분석 결과 (모형 3: 사회관계망 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947	.249		19.844	.000
문화예술활동	.203	.046	.192	4.455	.000
친구만남	.108	.054	.086	1.997	.046
배우자없는 남성	-1.158	.384	-.127	-3.014	.003

5. 노년층의 행복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앞서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가계소득, 주관적 소속계층,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 건강상태를 꼽을 수 있겠다. 이들 요인들이 모든 노인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다면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행복불평등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노년층의 행복불평등이 높다. 행복이 구성요소가 편재되어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행복의 영향요인별로 어떻게 편재되어 있으며 왜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8> 학력

		최종학력			P값
		중졸이하	고졸	대졸	
연령	60-64세	13.50%	56.50%	30%	0.006
	65-69세	18.30%	62.70%	18.90%	
	70-74세	36.40%	34.50%	29.10%	
출신지역	서울	3.40%	62.50%	34.10%	0.008
	경기인천	21.70%	58.70%	19.60%	
	경상도	17.20%	54.40%	28.30%	
	전라도	24.10%	50.00%	25.90%	
	충청 강원제주	19.40%	59.30%	21.30%	
아버지직업	관리자/전문가	0.00%	41.40%	58.60%	0.000
	사무직	10.70%	28.60%	60.70%	
	서비스/판매	3.60%	65.50%	30.90%	
	농림어업	30.90%	52.50%	16.60%	
	숙련/반숙련	10.80%	78.40%	10.80%	
	단순직	21.40%	64.30%	14.30%	
	군인/공무원	5.70%	62.30%	32.10%	
퇴직/무직	13.60%	59.10%	27.30%		
과거소속계층	상층	3.10%	59.40%	37.50%	0.000
	중간층	12.90%	51.50%	35.70%	
	하층	24.80%	61.30%	13.90%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24.4%	56.0%	19.6%	0.000
	고졸	5.6%	61.8%	32.6%	
	대졸	4.2%	42.3%	53.5%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증가하고, 서울 출신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을 보이며, 아버지의 학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 그리고 사무적인 경우 대졸의 비중이 50%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버지의 직업이 농림어업이나 단순직인 경우 상대적으로 중졸 비율이 높고 대졸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소속계층이 중간층 이상에서는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이나 하층인 경우 중졸비중이 높고 대졸 비중은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과 집안의 사회적 계층 정도가 자식의 학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표 9> 가계소득

		가계소득			P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연령	60-64세	40.50%	34.60%	24.90%	0.000
	65-69세	59.30%	31.10%	9.60%	
	70-74세	67.30%	29.10%	3.60%	
최종학력	중졸이하	72.00%	22.60%	5.40%	0.000
	고졸	51.30%	34.60%	14.10%	
	대졸	29.30%	36.40%	34.30%	
출신지역	서울	38.40%	38.40%	23.30%	0.000
	경기인천	60.90%	21.70%	17.40%	
	경상도	52.50%	30.70%	16.80%	
	전라도	49.10%	34.30%	16.70%	
	충청 강원제주	46.30%	36.10%	17.60%	
종사직업	관리/전문직	33.9%	33.0%	33.0%	0.000
	사무직	33.3%	43.0%	23.7%	
	판매직	58.1%	31.4%	10.5%	
	농림어업	83.3%	16.7%	0.0%	
	숙련/반숙련	64.0%	28.0%	8.0%	
	단순직	88.5%	11.5%	0.0%	
	군인/공무원	38.0%	44.0%	18.0%	
무직	61.3%	22.6%	16.1%		
아버지직업	관리자 /전문가	29.8%	43.9%	26.3%	0.000
	사무직	32.1%	35.7%	32.1%	
	서비스/판매직	40.0%	32.7%	27.3%	
	농림어업	54.2%	32.4%	13.4%	
	숙련 반숙련	64.9%	21.6%	13.5%	
	단순직	64.3%	28.6%	7.1%	
	군인 공무원	45.3%	30.7%	24.0%	
무직	59.2%	34.7%	6.1%		
과거소속계층	상층	34.4%	34.4%	31.3%	0.012
	중간층	44.3%	33.9%	21.8%	
	하층	57.0%	31.6%	11.4%	

가계소득은 연령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출신 중에 중간소득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사무직일 때 고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본인 또한 그러하다. 아버지가 농림어업이나 단순직인 경우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과거 소속계층이 낮을수록 현재 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에 가입여부			P값	국민연금 금수령 액 월 평균 (만원)	공무원·군 인연금수령 액 월 평균 (만원)	사적연금 가입여부		P값	사적연금 수령액 월 평균 (만원)
		국민연금	공무원/군 인연금	없음				예	아니오		
노인전체 (534)		50%	15.7%	34.3%	-	55.05	265.41	21.2%	78.8%	-	68
노인연령	60-64세	53.50%	14.20%	32.30%	0.011	60.18	273.2	28.10%	71.90%	0.000	66
	65-69세	49.70%	17.20%	33.10%		48.62	263.86	11.20%	88.80%		59
	70-74세	30.90%	20.00%	49.10%		36.76	238.36	12.70%	87.30%		129
최종학력	중졸이하	40.90%	4.30%	54.80%	0.001	39.26	289.5	4.30%	95.70%	0.000	18
	고졸	55.70%	14.00%	30.30%		56.01	241.52	21.00%	79.00%		77
	대졸	44.00%	27.00%	29.10%		62.16	289.29	32.60%	67.40%		62
가계월평균 소득	고소득층	52.7%	23.4%	24.0%	0.000	64.01	280.87	35.3%	64.7%	0.000	83
	중소득층	53.5%	21.5%	25.0%		55.74	257.81	20.0%	80.0%		60
	저소득층	42.7%	1.2%	56.1%		43.21	127.50	7.9%	92.1%		37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	관리/전문/ 사무	57.50%	18.40%	24.10%	0.000	64.98	276.76	28.50%	71.50%	0.007	58
	서비스/판매	45.30%	3.80%	50.90%		34.48	205.25	14.20%	85.80%		50
	농림어업	44.40%	0.00%	55.60%		26.5	.	5.60%	94.40%		30
	숙련/반숙련	76.00%	0.00%	24.00%		57	.	16.00%	84.00%		33
	단순직	46.20%	0.00%	53.80%		38.33	.	7.70%	92.30%		9
	군인/공무원	12.00%	76.00%	12.00%		46	259.21	24.00%	76.00%		156
	무직	16.10%	0.00%	83.90%		67	.	19.40%	80.60%		159

통계학적으로 아직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변수가 되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가입여부와 연금(예상)액이 어떻게 노년층 내부에서 차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보자.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가입율은 학력이 높고, 고소득층이며, 관리사무직, 숙련/반숙련(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군인/공무원의 경우에 높았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과 단순직에서는 5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없다. 사적연금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단, 국민연금에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숙련/반숙련 근로자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가입률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1> 건강상태

		전혀 없음	1-2개	3-4개	5개 이상	P값
노인전체(534)		20.60%	51.70%	22.10%	5.60%	-
연령별노인구분	60-64세	26.50%	47.10%	21.90%	4.50%	0.014
	65-69세	11.20%	58.60%	22.50%	7.70%	
	70-74세	16.40%	56.40%	21.80%	5.50%	
성별	남자	12.60%	52.40%	29.10%	5.90%	0.000(T값)
	여자	27.90%	51.10%	15.70%	5.40%	
최종학력	중졸이하	22.60%	54.80%	15.10%	7.50%	0.064
	고졸	18.30%	49.00%	27.30%	5.30%	
	대졸	24.10%	55.30%	15.60%	5.00%	
가계소득	고소득층	24.0%	49.1%	24.0%	3.0%	0.337

	중소득층	19.5%	51.5%	25.0%	4.0%	
	저소득층	18.9%	53.7%	17.1%	10.4%	
종사직업	관리/전문/사무	22.40%	51.30%	21.90%	4.40%	0.098
	서비스/판매	21.70%	54.70%	18.90%	4.70%	
	농림어업	11.10%	61.10%	16.70%	11.10%	
	숙련/반숙련	16.00%	42.70%	37.30%	4.00%	
	단순직	42.30%	26.90%	11.50%	19.20%	
	군인/공무원	10.00%	58.00%	22.00%	10.00%	
	무직	19.40%	71.00%	9.70%	0.00%	

만성질환은 보통 1-2개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만성질환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나 소득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저소득계층에서 건강(만성질환 없음)할 확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직업별로 보면 단순직에서 건강하거나 만성병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2> 의료 접근성

		접근성낮음	보통	접근성높음	P값
전체(534)		5.10%	17.80%	77.20%	-
가계소득	고소득층	3.0%	17.4%	79.6%	0.033
	중소득층	3.0%	18.0%	79.0%	
	저소득층	9.8%	17.7%	72.6%	
거주지역	서울	1.90%	15.90%	82.20%	0.008
	경기	6.50%	22.20%	71.30%	
	광역시	2.90%	13.80%	83.30%	
	경상도	7.40%	20.60%	72.10%	
	전라도	14.30%	20.40%	65.30%	
	충청도	2.60%	12.80%	84.60%	
	강원 제주	4.00%	24.00%	72.00%	
종사직업	관리/전문/사무	3.90%	13.60%	82.50%	0.000
	서비스/판매	7.50%	25.50%	67.00%	
	농림어업	22.20%	44.40%	33.30%	
	숙련/반숙련	1.30%	16.00%	82.70%	
	단순직	3.80%	3.80%	92.30%	
	군인/공무원	2.00%	20.00%	78.00%	
	무직	9.70%	19.40%	71.00%	

참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다소 나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의 의료접근성이 높고,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졌다. 이 점은 종사직업이 농림어업인 경우에 의료접근성이 크게 낮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남성의 배우자 유무

		남자		P값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	
최종학력	중졸이하	88.2%	11.8%	0.000
	고졸	89.8%	10.2%	
	대졸	88.2%	11.8%	
가계소득	저소득층	83.1%	16.9%	0.000
	중소득층	93.3%	6.7%	
	고소득층	89.2%	10.8%	
현재소속계층	하층	85.7%	14.3%	0.003
	중간층	90.6%	9.4%	
	상층	100.0%	0.0%	
종속직업	관리/전문직	89.3%	10.7%	0.000
	사무직	84.5%	15.5%	
	판매직	95.5%	4.5%	
	농림어업	83.3%	16.7%	
	숙련/반숙련	88.1%	11.9%	
	단순직	75.0%	25.0%	
	군인/공무원	95.3%	4.7%	
무직	100.0%	0.0%		

세부 교차분석에서 드러났듯이 배우자 없는 남자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뚜렷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주관적 소속계층이 하층인 경우, 그리고 농림어업이나 단순직에 종사하였던 노령층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높다.

<표 14>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		P값
		있음	없음	
과거소속계층	상층	0.0%	100.0%	0.000
	중간층	36.4%	63.6%	
	하층	68.7%	31.3%	
최종학력	중졸이하	51.6%	48.4%	0.740
	고졸	47.0%	53.0%	
	대졸	48.2%	51.8%	
출신지역	서울	42.0%	58.0%	0.617
	경기인천	43.5%	56.5%	
	경상도	48.3%	51.7%	
	전라도 충청 강원제주	49.1% 52.8%	50.9% 47.2%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	관리/전문직	44.7%	55.3%	0.015
	사무직	49.1%	50.9%	
	판매직	50.9%	49.1%	
	농림어업	33.3%	66.7%	
	숙련/반숙련	50.7%	49.3%	
	단순직	26.9%	73.1%	
	군인/공무원	68.0%	32.0%	
무직	35.5%	64.5%		

설문 대상자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후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인데, 학력이나 지역 불문하고 응답자의 50% 정도가 상향이동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상층이었던 응답자는 더 상향 이동할 수가 없어서 상향이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층도 상향이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반면, 과거 소속계층이 하층인 경우에 상승이동 경험 확률이 68.7%로 가장 높다. 산업화 시기에 당시 하층이 하층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상향이동 하였던 ‘행복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단, 상향이동의 경험이 단순직과 농림어업에 종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된다.

<표 15> 현재의 주관적 소속사회계층

		하층	중간층	상층
세대별	15-18세	16.30%	79.90%	3.80%
	19-39세	29.10%	67.80%	3.10%
	40-59세	25.50%	70.40%	4.10%
	60-74세	27.90%	65.50%	6.60%
최종학력	고졸이하	33.10%	63.60%	3.30%
	대졸이상	13.50%	70.90%	15.60%
출신지역	서울	26.10%	62.50%	11.40%
	경기인천	39.10%	56.50%	4.30%
	경상도	31.70%	63.30%	5.00%
	전라도	24.10%	68.50%	7.40%
	충청 강원제주	22.20%	72.20%	5.60%
종사직업	관리자/전문직	13.20%	71.10%	15.80%
	사무직	19.30%	71.90%	8.80%
	판매직	31.10%	67.00%	1.90%
	농림어업	44.40%	55.60%	0.00%
	숙련/반숙련	49.30%	49.30%	1.30%
	단순직	46.20%	53.80%	0.00%
	군인/공무원	28.00%	68.00%	4.00%
	무직	25.80%	67.70%	6.50%
아버지직업	관리자/전문가	13.80%	70.70%	15.50%
	사무종사자	14.30%	75.00%	10.70%
	서비스/판매	21.80%	70.90%	7.30%
	농림어업	29.50%	65.40%	5.10%
	숙련/반숙련	40.50%	54.10%	5.40%
	단순직	35.70%	57.10%	7.10%
	군인/공무원	24.50%	71.70%	3.80%
	퇴직/무직	31.80%	59.10%	9.10%
과거소속계층	하층	43.90%	53.00%	3.00%
	중간층	16.50%	76.80%	6.60%
	상층	9.40%	59.40%	31.30%

과거에 하층에 속했던 노인들이 사회적 상향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이미 상층이나 중간층인 사람에 비해 높았으나, 이들이 상층에 진입하는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현재 중간층 혹은 상층일 확률은 과거의 소속계층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43.9%는 현재도 자신은 하층이라고 여기고, 중간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대다수는 현재 자신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여기며(76.8%),

과거 상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에서 현재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3%로 뚜렷하게 높게 나왔다. 그리고 현재 중간층이나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자는 학력이 대졸자,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사무직인 경우에 높았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출신에서 상층이라고 응답한 자가 많았으나, 충청/강원/제주/전라 출신에서도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출신 지역은 현재의 사회계층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소득같은 경제변수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인정감이나 문화체험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변수는 아직 우리나라 노년층들에게는 ‘사치’인 것이다. 후술할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과 더불어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층의 소득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적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못 받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액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사적연금의 가입이나 급여액도 전 소득계층에서 그리 높지 못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어도, 낮은 급여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약한 공적연금제도는 노년층의 삶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노년층은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이 높은 세대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직업이나 과거 어릴 때 자신의 집안이 속한 사회계층이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과 비교적 뚜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의 중요성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학력이 평준화 될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족배경의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1차 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건강상태는 남녀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보이나, 소득이나 직업 등과 연관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크게 낮았다. 이번 조사 대상자가 60세에서 74세로 비교적 ‘젊은’ 노인이었기에, 의료접근성의 차이가 건강상태의 차이로 직결되지 않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 여부가 노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에, 농어촌 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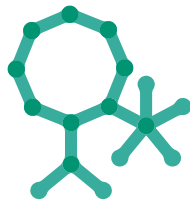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영선. 2012. “노인의 건강 및 의료비용 형평성에 관한연구: 연령집단별 분석” . 보건과 사회과학. 31집: 55~81
- 김학준. 2016. “기이한 현상! 한국의 행복불평등” HERI Review. 39권 (2016년 봄호).
- 오세인. 2016. “은퇴 뒤에도 생계비 위해 취업: 위태로운 ‘미끄럼틀 사회’ ” HERI Review. 39권 (2016년 봄호).
- 이원진.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한국사회학, 47(5), 241-275.
-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 제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Anda Grinfelde, baiba Mistre. 2008. “Pension as one of Factors Influencing Older People’ s Life Quality” . Social Research. Nr.4 (14), 36-46
- Binstock, Robert and Linda George (eds.). 2006.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Ed Diner, Micaela Y. Chan. 2011. “Happy People Live Longer: Subjective Well-Being Contribute to Health and Longevity” . 3(1), 1-43.
- Hellivell, John, Haifang Huang, and Shun Wang. 2016. “The Distribution of World Happiness” in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6.
- Holden K. and C. Hatcher. 2006. “Economic status of the aged” in Robert Binstock and Linda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Layard, Richard, Andrew Clark and Claudia Senik. 2012. “The Causes of Happiness and Misery” in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 Lykken. D. 1999. *Happiness: The nature and nurture of joy and contentment*. New York: St. Martin’ s Griffin.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doi:10.1037/h0054346

부록1. 변수 종합 표

변수명	변수값 및 조작화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I14)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11개 척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독립변수	
성별	남자=1, 여자= 0
최종학력 (A1)	기존 11개 세부 응답을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대졸이하로 구분
오랫동안 종사한직업(F2)	기존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숙련기능직, 반숙련 기능직, 단순직, 군인·공무원, 퇴직·무직 11개 구분에서 ①관리자·전문가 ②사무직 ③서비스·판매직 ④농림어업직 ⑤숙련·반숙련직 ⑥단순직 ⑦군인·공무원 ⑧퇴직·무직 8개로 조작화
아버지직업(기본)	기존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숙련기능직, 반숙련 기능직, 단순직, 군인·공무원, 퇴직·무직 11개 구분에서 ①관리자·전문가 ②사무직 ③서비스·판매직 ④농림어업직 ⑤숙련·반숙련직 ⑥단순직 ⑦군인·공무원 ⑧퇴직·무직 8개로 조작화
출신지역(A2)	①서울 ②경기인천 ③경상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④전라도(광주, 전북, 전남) ⑤충청·강원·제주(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제주) ⑥해외는 결측처리
거주지역(기본)	①서울 ②경기 ③광역시(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④경상도(경북, 경남) ⑤전라도 (광주, 전북, 전남) ⑥충청도(충북, 충남) ⑦강원·제주
가계월평균소득 (A3-8)	기존 19개 세부 응답을 ①상층(401만원 이상) ②중간층(201만원-400만원) ③하층(200만원 이하)
과거소속계층(H3)	15세 기준 본인의 계층인식을 1(최저)에서 10(최고)로 응답 ① 하층(1-3), ② 중간층(4-7), ③ 상층(8-10)
현재소속계층(H4)	현재 기준 본인의 계층인식을 1(최저)에서 10(최고)로 응답 ① 하층(1-3), ② 중간층(4-7), ③ 상층(8-10)
계층이동분류 (생성)	회귀분석적용= “현재소속계층” 의 값에서 “과거소속계층” 의 값을 뺀 값(-9에서 9)을 1(최저)에서 19(최고)로 변환한 값
	교차분석적용= “현재소속계층” 의 값에서 “과거소속계층” 의 값을 뺀 값(-9에서 9)이 음수면 하강, 0이면 유지, 양수면 상승
상향이동경험(생성)	“현재소속계층” 의 값에서 “과거소속계층” 의 값을 뺀 값이 양수면 ①있음, 나머지 값은 ②없음
배우자선택(A5-4)	① 배우자 사랑(사랑, 신체적 매력, 성격, 취미)=1 ② 배우자 능력 및 집안 (배우자 학벌, 소득, 집안재산, 집안문화) = 0
주거점유형태(A1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④월세 ⑤부모님명의·기타
자가소유여부(생성)	“주거점유형태” 를 ①자가 ②미소유(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부모님소유, 기타)
기회공평성인식(I3)	기존 5개 척도를 ①공평(매우·대체로) ②보통 ③ 불공평(매우·대체로)
취업상태(A3)	기존 일하고 있음, 취업준비, 경제활동하지 않음을

	①취업 ②미취업(준비·비경제활동)
근로유형(A3-1)	①유급근로 ②자영업 ③무급근로
공적연금(F4)	국민연금 수급여부(예, 아니오) 공무원연금 수급여부(예, 아니오)
사적연금(F5)	사적연금 수급여부(예, 아니오)
공적연금액(생성)	국민연금 수령액 + 공무원연금 수령액
의료접근성(F8)	기존 5개 척도를 ①그렇다(매우·대체로) ②보통 ③그렇지않다(매우·대체로)
만성질환개수(F9)	기존 오픈코드를 ① 0개 ②1~2개 ③3~4개 ④5~6개 ⑤7개 이상
자녀와의만남(F6-2)	기존 8개 척도를 ①전혀하지 않음 ②한 달 1-2회 ③한 달 3-4회 ④ 일주일 3-7회
친구와의 만남(F6-4)	기존 8개 척도를 ①전혀하지 않음 ②한 달 1-2회 ③한 달 3-4회 ④ 일주일 3-7회
문화예술활동(F7-4)	기존 8개 척도를 ①전혀하지 않음 ②분기별 1-2회 ③한달에 2회 ④ 일주일 2회 이상
정치참여(G1,2)	2012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참여 여부
이념적성향(G5)	기존5개 척도를 ①진보(매우·대체로) ②보통 ③ 보수(매우·대체로)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3층 (역삼동, 나래빌딩)

Tel 02,3470,3600 Fax 02,3470,3601

www.thecircle.or.kr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리포트를 무단전재 및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